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Ⅲ 데이터분석보고서 :

#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 책임연구원 : 유성렬(백석대학교·교수)
- ▶ 책임연구원 : 김신영(한양사이버대학교·교수)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Ⅲ 데이터분석보고서 1 :

고등학생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책임연구원 : 유성렬(백석대학교·교수)

---

I. 서론 .....	1
II. 이론적 배경 .....	7
III. 연구방법 .....	19
IV. 분석결과 .....	29
V. 결론 .....	55
참고문헌 .....	63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Ⅲ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청소년의 참여권 인식수준 결정요인

▶ 책임연구원 : 김신영(한양사이버대학교·교수)

---

I. 서론 .....	1
II. 이론적 배경 .....	5
III. 분석개요 .....	11
IV. 분석결과 .....	19
V. 소결 및 합의 .....	41
참고문헌 .....	45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Ⅲ 데이터분석보고서 1

# 고등학생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책임연구원 : 유성렬(백석대학교·교수)



##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인권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으며, 자신들이 처한 인권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살펴보고 인권 태도 및 인권 상황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3년에 실시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 가운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적 특성, 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제반 환경 요인 및 경험 요인을 주요 독립변수로, 청소년의 인권 상황에 대한 태도와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응답자의 학교 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응답자 부모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인권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권수준에 대한 인식은 학교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정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인권 상황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특성 변수 가운데 성별,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 환경 요인 변수 가운데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 정도, 학교에서의 참여 여건, 청소년활동 참여 지지 여부, 경험 요인 변수 가운데 학교에서의 용모나 소지품 검사 경험, 사회문제 참여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특성 변수 가운데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있었고, 환경 요인 변수 가운데에는 가정에서의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 정도, 학교에서의 참여 여건, 학교에서의 사생활 공개, 청소년 활동 참여 지지와 청소년 참여권 보장 변수들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경험 요인 변수 가운데에는 체벌 경험과 차별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과 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적 함의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 연구 요약

###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인권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으며, 자신들이 처한 인권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인권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이 인권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청소년들이 인권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고자 함.

### 2. 연구방법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간된 국제기준 대비 인권 수준과 관련한 일련의 보고서와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 및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관련한 연구들에 대한 비판적으로 검토를 통하여 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청소년의 인권 의식에 대한 인과적 분석을 위한 모형을 수립함.
- 2013년에 수집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 가운데 고등학생 응답자를 중심으로 빈도분석, 평균 비교를 위한 다양한 통계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인권 상황 및 이에 대한 인식 수준의 실태와 인권 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함.

### 3. 주요결과

#### 1) 고등학생의 인권 현황

-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응답자의 학교 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응답자 부모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인권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인권수준에 대한 인식은 학교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정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임.
-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에 대한 인식은 학교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정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생회 운영 여건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학교성적 및 가정의 경제적 여건과 정적인 관계를 보임.
-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주변의 지지 정도 및 청소년들의 참여권 보장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의 학년이 낮을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 경험요인

- 인권교육 경험 정도는 학년이 낮을수록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고, 체벌 경험도 학년이 낮을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체벌 경험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더 많았음.
- 학교에서 용모나 소지품 검사 경험은 여학생일수록, 1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문제 참여 경험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 및 부모의 교육정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학업성적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임.
- 여학생들이 차별 경험이 더 많았다고 응답하였고, 학교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 및 부모의 교육정도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임.

#### 3) 인권태도 결정 요인

- 청소년의 인권 상황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특성 변수 가운데 성별,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 환경 요인 변수 가운데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 정도, 학교에서의 참여 여건, 청소년활동 참여 지지 여부, 경험 요인 변수 가운데 학교에서의 용모나 소지품 검사 경험, 사회문제 참여 경험인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의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특성 변수 가운데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있었고, 환경 요인 변수 가운데에는 가정에서의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 정도, 학교에서의 참여 여건, 학교에서의 사생활 공개, 청소년 활동 참여 지지, 그리고 청소년 참여권 보장 변수들이, 마지막으로 경험 요인 변수 가운데에는 차별 경험과 차별 경험인 것으로 나타남.

#### 4.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난 결과는 친인권적 학교 환경이 청소년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태도와 더불어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서, 청소년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우선 친인권적 학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특정 학년에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인권교육이 아닌 고등학교 전 학년에 걸친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통하여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특히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 실시를 통하여 친인권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의 인권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청소년 인권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는 물론 정책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목 차

<b>I. 서 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	3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5
<b>II. 이론적 배경</b> .....	7
1. 선행연구 검토 .....	9
2.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 .....	13
3. 연구문제의 설정 .....	15
<b>III. 연구방법</b> .....	19
1. 연구대상 .....	21
2. 측정도구 .....	22
3. 분석방법 .....	27
<b>IV. 분석결과</b> .....	29
1. 고등학생의 인권 현황 .....	31
2. 경험 요인 .....	40
3. 인권태도 결정 요인 .....	48
<b>V. 결 론</b> .....	55
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	57
2. 정책 제언 .....	61
<b>참 고 문 헌</b> .....	63

# 표 목차

〈표 II-1〉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체계 .....	11
〈표 III-1〉 연구대상 표본의 특성 .....	22
〈표 III-2〉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 측정 문항 .....	23
〈표 III-3〉 인권수준에 대한 인식 측정 문항 .....	23
〈표 III-4〉 가정에서의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 측정 문항 .....	25
〈표 III-5〉 학교에서의 참여 여건 .....	25
〈표 III-6〉 학교에서의 사생활 공개 .....	25
〈표 IV-1〉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의 개인적 특성별 차이 .....	31
〈표 IV-2〉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와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	32
〈표 IV-3〉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의 개인적 특성별 차이 .....	32
〈표 IV-4〉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과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	33
〈표 IV-5〉 가정에서의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의 개인적 특성별 차이 .....	33
〈표 IV-6〉 가정에서의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과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관계 .....	34
〈표 IV-7〉 학생회 운영 여건의 개인적 특성별 차이 .....	35
〈표 IV-8〉 학생회 운영 여건과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	35
〈표 IV-9〉 학교에서의 참여 여건의 개인적 특성별 차이 .....	35
〈표 IV-10〉 학교에서의 참여 여건과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	36
〈표 IV-11〉 학교에서의 사생활 공개의 개인적 특성별 차이 .....	36
〈표 IV-12〉 학교에서의 사생활 공개와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	37
〈표 IV-13〉 청소년 활동 참여 지지의 개인적 특성별 차이 .....	37

〈표 IV-14〉 청소년 활동 참여 지지와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	38
〈표 IV-15〉 참여권 보장의 개인적 특성별 차이 .....	38
〈표 IV-16〉 참여권 보장과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	39
〈표 IV-17〉 환경 요인과 개인적 특성과의 관계 요약 .....	39
〈표 IV-18〉 인권교육 경험의 개인적 특성별 차이 .....	40
〈표 IV-19〉 인권교육 경험과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	41
〈표 IV-20〉 차별경험의 개인적 특성별 차이 .....	41
〈표 IV-21〉 차별경험과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	42
〈표 IV-22〉 학교 용모·소지품검사 경험의 개인적 특성별 차이 .....	42
〈표 IV-23〉 학교 용모·소지품검사 경험과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	43
〈표 IV-24〉 사회문제 참여 경험의 개인적 특성별 차이 .....	44
〈표 IV-25〉 사회문제 참여 경험과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	44
〈표 IV-26〉 인권관련 정보 제공 경험의 개인적 특성별 차이 .....	45
〈표 IV-27〉 인권관련 정보 제공 경험과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	45
〈표 IV-28〉 차별경험의 개인적 특성별 차이 .....	46
〈표 IV-29〉 차별경험과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	46
〈표 IV-30〉 청소년 참여기구 참여 경험의 개인적 특성별 차이 .....	47
〈표 IV-31〉 청소년 참여기구 참여 경험과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	47
〈표 IV-32〉 환경 요인과 개인적 특성과의 관계 요약 .....	48
〈표 IV-33〉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 회귀분석 결과 .....	50
〈표 IV-34〉 인권수준에 대한 인식 회귀분석 결과 .....	53

# 그림 목차

【그림 II-1】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도식 .....17

# 제 1 장

---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지난한 민주화 과정을 지나오면서 우리 사회 내의 곳곳에 놓여 있는 약자들을 위한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관심도 아울러 고조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법제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하기 위해 200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모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특히 교육기본법의 제12조에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고, 제17조와 제18조에서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학생 징계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등을 명시하는 등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구비해 놓고 있다(법제처, 교육기본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특히 학생의 지위에 놓여있는 청소년의 인권에 대해서는 서로 상충하는 입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학생으로서의 청소년의 사회적 위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볼 때,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존재이며 이 과정에서 학교 교육은 매우 중요한 사회화 기제로 간주된다. 학습자의 인권 보장을 언급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다수의 학생들을 제한된 공간 내에서 효율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율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부 권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학생의 위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학교의 규율이 효과적인 교육과 학교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규율의 적용을 받는 학생 당사자들의 의견과는 관계없이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나마도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체벌,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규제, 소지품 검사 등과 같은 관행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 입장에서는 학생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독자적인 인격을 지닌 인권의 주체로 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임희진·김현신, 2012).

촛불집회 당시 청소년들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었던 것과 더불어 학생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운동의 가능성을 확인한 가운데 학교에서 교사의 심각한 체벌을 사회문제화 하면서 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재개되었고, 2006년 ‘학생인권법안’이 발의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의 인권 문제가 주요 의제로 등장하게 되었다(박재수, 2010). 특히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이후 진보적 성향을 지닌 교육감이 당선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학생 인권을 교육 현장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학계에서의 청소년 인권 혹은 학생 인권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상당부분 개념적 접근에 초점을 두거나 실태를 규명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기존의 청소년 인권에 관한 연구들은 학생 또는 청소년 인권의 개념을 규명하거나(배경내, 2006; 이봉철, 1991; 이재연·황옥경·김희진, 2009; 최윤진, 2000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기준에 비추어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개발하여 그 현황을 진단하는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모상현·김영지·김영인·이민희·황옥경, 2010; 모상현·김희진, 2009; 임희진·김현신, 2011; 임희진·김현신, 2012 등).

청소년 인권의 개념을 명확히 설정하거나 국제적인 기준과의 비교 또는 나름대로의 인권지표 체계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권 수준을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 인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권 수준의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다. 즉 청소년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청소년 자신이 스스로의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수호하려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류의 인권신장의 역사 속에 나타나듯이 인권의 확보는 기득권자들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제공해 주었다기보다는 스스로의 권리를 자각하고 이를 얻어 내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청소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으로서 또는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스스로 얻어내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만 비로소 청소년 인권 수준의 향상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들이 인권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들이 인권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단순히 학술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청소년 인권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개념적이거나 실태를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를 연구함에 있어 기존의 이론에 근거한 인과적 설명을 제시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Bronfenbrenner(1976)의 생태학적 관점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인권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인권 신장과 관련한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1) 연구의 내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검토할 것이다. 청소년 인권과 관련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해 온 일련의 연구들은 청소년 인권을 둘러싼 제반 상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 혹은 인권 의식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이론적 관점에서 추출할 것이다.

둘째,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의 수준을 파악하고, 동시에 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의 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 인권 태도는 물론 이와 관련한 제반 요인들의 현재

수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인권 태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다변량분석을 통하여 어떤 요인이 청소년의 인권태도와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앞서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인권에 대한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 궁극적으로 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제안을 시도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밝혀내기 위해 관련 연구문헌을 수집·분석할 것이다. 특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간된 국제기준 대비 인권 수준과 관련한 보고서와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그리고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관련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자료 분석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와 더불어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요인들의 현 수준을 파악하고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2013년에 수집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사용하여 다양한 통계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빈도분석, 평균 비교를 위한 통계방법,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 제 2 장

---

#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검토
2.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
3. 연구문제의 설정



## II. 이론적 배경

### 1.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된 데에는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인권조약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93개국의 비준을 받은 국제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임희진·김현신, 2011).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협약 비준국은 비준 후 협약 이행과 관련한 국가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나라는 1994년과 1999년에 국가보고서를, 1995년과 2003년에 NGO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우리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권고문을 통해 “아동에 관한 통계를 협약의 전 분야에 걸쳐 수집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전체 아동에 관한 항목별 통계수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수집된 통계를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수립, 이행점검, 평가에 사용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을 권고하였다(임희진·김현신, 2011; p. 4).

이러한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의 여러 하위 영역에 대한 단편적인 조사 결과를 취합하는 것에서 벗어나 인권 영역 전반에 걸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적 수요에 발맞추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06년부터 2010까지 5년에 걸쳐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를 추진하였다.

2006년에 실시된 1차년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청소년 인권지표 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기존의 인권 관련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청소년 인권을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와 청소년이기 때문에 요청되어 지는 특수한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인권 하위영역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과 청소년인권 인프라로 유형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

다(최창욱·박영균·김진호·임성택·전성민, 2006; p. 15).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기존의 여러 인권 지표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거쳐 타당성(validity), 측정 가능성(measurability), 국제비교 가능성(comparability), 실용성(practicality), 해석의 용이성(understandability and acceptance)의 5개 기준에 근거하여 20개 영역에 걸쳐 152개의 지표를 개발하였다(최창욱 외, 2006).

2007년의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 개발한 지표 가운데 조사가 필요한 항목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거쳐 측정 가능성, 비교 가능성, 실용성의 기준을 사용하여 59개의 조사문항을 개발하고,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6,9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이종원·장근영·김형주, 2007).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청소년 인권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정의된 인권 개념에 기초하여 이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전국 단위 표본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 인권 현황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연구에 기초하여 2008년의 3차년도 연구에서는 외국의 청소년 인권 현황과 비교를 시도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국제 비교를 위해 2007년에 개발된 조사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생존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건강에 대한 주의도, 건강진단,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아침식사, 수면시간,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인식에 있어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보다 심각하게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권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참여권 수준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지·김희진·김진숙·김진호·안재희·이경자, 2008).

2009년과 2010년에 이루어진 4차 및 5차년도 연구에서는 청소년 인권의 4개 하위 영역을 생존권과 보호권, 그리고 발달권과 참여권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모상현 외, 2010; 모상현·김희진, 2009). 특히 4차년도 조사부터는 조사대상에 초등학생을 포함시켜 모집단을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설정하여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모상현·김희진, 2009).

청소년 인권에 대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5년에 걸쳐 수행한 연구는 청소년 인권 연구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우선 이 일련의 연구들은 청소년 인권 수준을 파악하는데 있어 단편적으로 몇 가지 영역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 인권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영역에서의 인권 현황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이 연구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권 실태를 살펴봄에 있어 조사 모집단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선정하고 대규모 표본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확률표집 방법에 근거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확보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권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기존의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2011년의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필두로 2016년까지 6년에 걸쳐 청소년의 인권실태에 관한 연구를 기획·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1년의 연구에서는 기존에 청소년 인권을 4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각 영역 간 및 지표 사이의 인과관계의 중첩성, 상호 배타성의 미확보, 정책적 활용의 미흡 문제를 지적하고, 청소년 인권의 측정을 위한 지표 체계를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과 직접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정기보고서의 작성지침에 따른 클러스터 체제를 기반으로 지표체계를 수정하고 관련 지표를 산출하였으며(임희진·김현신, 2011), 2012년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발달권과 참여권 영역의 지표들을 재범주화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지표값을 산출하였다(임희진·김현신, 2012).

이 과정을 거쳐 현재 진행 중인 2013년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표 체계를 수정하여 <표 II-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 인권을 6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영역을 다시 구분하여 지표 항목을 재설정하였다.

표 II-1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인권 일반 및 일반원칙	1-1. 인권일반(제4조, 42조)	1-1-1. 인권인프라
		1-1-2. 인권의식
	1-2. 일반원칙(제2조, 제3조)	1-2-1. 차별금지
		1-2-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1. 이름과 국적(제7조), 신분의 등록 및 유지(제8조)	2-1-1. 국적 및 신분
		2-2-1. 가정에서의 참여
	2-2. 의견표명권(제12조), 표현의 자유(제13조)	2-2-2. 학교에서의 참여
		2-2-3. 사회 참여
		2-3-1. 양심적 병역 거부
	2-3.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2-3-2. 학교에서의 종교자유
		2-4.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2-5. 사생활의 보호 (제16조)	2-5-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2-5-2. 학생 정보 보호
	2-6. 정보접근권 (제17조)	2-6-1. 매체에 대한 접근 2-6-2. 알권리
	2-7.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가, 제28조 2항)	2-7-1. 체벌 2-7-2. 정서적 학대 2-7-3. 청소년 폭력
3.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3-1. 부모의 지도와 책임(제5조, 제18조 1항, 2항)	3-1-1. 보호시설 3-1-2. 부모와의 관계
	3-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제20조)	3-2-1. 가출청소년·소년소녀가정 3-2-2. 대안적 양육
	3-3. 입양(제21조)	3-3-1. 입양
	3-4.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19조 및 제39조)	3-4-1. 학대방임
	3-5.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제25조)	3-5-1. 보호기관 심사
4.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4-1. 장애(제23조)	4-1-1. 장애아동·청소년 보호
	4-2. 생존 및 발달(제6조 2항)	4-2-1. 생존과 발달 보장
	4-3. 보건서비스(제24조)	4-3-1. 건강관리 조치
	4-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제24조)	4-4-1. 건강 평가 및 관심도 4-4-2. 신체적 건강 4-4-3. 정서적 안정
	4-5. 청소년의 생식보건 권리	4-5-1. 성교육
	4-6. 약물남용방지 대책(제33조)	4-6-1. 예방교육 4-6-2. 음주흡연
	4-7. 사회 보장 및 아동 보호시설(제26조 및 제18조 3항)	4-7-1. 사회보장 서비스 대상 4-7-2. 사회보장 서비스 내용
5.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5-1. 교육에의 권리 (제28조)	5-1-1. 교육의 기회 5-1-2. 진로교육 기회
	5-2. 교육의 목표 (제29조)	5-2-1. 학교의 의미와 기능 5-2-2. 교육현장의 인권존중 노력 5-2-3. 다문화 이해
	5-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제31조)	5-3-1.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 5-3-2. 아동·청소년활동
6. 특별 보호 조치	6-1. 난민아동(제22조)	6-1-1. 난민아동
	6-2. 소년 사법	6-2-1. 소년사법
	6-3. 구속, 수감 등 자유 가 박탈된 아동 (제37조 나, 라), 사형 및 중신형의 금지와 회복적 접근(제37조 가)	6-3-1. 구속, 수감 등 자유 가 박탈된 아동(제37조 나, 라), 사형 및 중신형의 금지와 회복적 접근(제37조 가)
	6-4. 경제적 착취	6-4-1. 경제적 착취
	6-5. 성적착취	6-5-1. 성적 착취

새로운 지표 체계에 따라 기존의 행정자료 등으로부터 산출되는 정량지표와 조사가 필요한 정성지표들은 이 지표체계에 따라 재분류되어 자료를 수집함으로써<sup>1)</sup>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 인권의 현주소를 밝혀주게 되는데, 지난 수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온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의 연구들은 앞선 연구의 문제점이나 한계점들을 점진적으로 보완·수정되어오는 과정에서 이론적인 관점에서나 정책적인 관점에서 보다 개선된 지표 체계로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

청소년 인권과 관련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 일련의 연구들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권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 기여한 것과 달리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게다가 청소년 인권에 대한 논의도 대부분 철학적이거나 개념적인 수준에서 인권을 정의하고, 청소년 인권의 하위 범주를 구별하는 논의에 집중되어 있다(김자영, 2011; 배경내, 2006; 이봉철, 1991; 이재연 외, 2009; 최윤진, 2000 등). 이 가운데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나 인권의식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간헐적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는데, 여기서는 이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인권의식 형성과 관련하여 김자영(2011)은 기존의 인권과 관련한 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인권 교육은 인권과 관련한 지식, 인권에 대한 감정 및 행동의지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인권 의식은 “교육을 통해 위의 요소들을 내재화하고, 참여와 행동으로 표출하려는 태도”로 정의하고 있다(p. 64). 즉 인권의식이란 “자신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에게 부여된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수호하고 옹호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김자영, 2011; p. 64). 김자영(2011)에 따르면, 기존의 인권의식의 대한 연구는 주로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어 왔는데, 이에서는 인권의식 개념의 특성 상 도덕적 속성이 내재되어 있는 관계로 인권의식이 Kohlberg의 도덕성 발달 단계에 맞추어 형성되어 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미(1999)는 Kohlberg의 도덕발달 관점을 채택하여 연령과 성별에 따라 인권의식의 발달적

1)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이 지표 체계에 기초하여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성지표 항목 문항들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학교 1학년과 3학년 학생 각각 6명씩과 성인 3명 등 총39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5학년에서 대학교 3학년까지의 참여자 대부분의 인권의식이 Kohlberg의 도덕발달 2단계인 도구적 쾌락주의와 획일적 평등주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발달적 관점과는 달리 인권에 관한 태도에 초점을 두어 태도를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김영신(2010)은 친인권적 교실문화가 인권태도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에서 태도를 인지, 정서, 행동의 세 가지 요소를 지니는 지속적인 경향으로 보고, 인권태도를 인권에 대한 인지적 태도와 정서적 태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친인권적 교실문화 경험 자체만으로는 인권에 대한 인지적 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인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의 친인권적 교실 문화 경험은 인권에 대한 인지적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권에 대한 정서적 태도는 인권 교육 프로그램 참여여부와 관련 없이 친인권적 교실문화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신, 2010). 이와 더불어 학업 성적, 주관적 계층의식은 인권에 대한 인지적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주관적 계층의식은 인지적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 인권에 대한 정서적 태도 수준이 높았으며, 학교성적, 종교, 주관적 계층의식, 거주지역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인권에 대한 정서적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태도에 대한 성별의 영향과 관련하여 류지현과 허창영(2008)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별이 인권 태도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는데, 이는 여학생들의 인권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남학생들보다 더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하였다(류지현·허창영, 2008). 이와 더불어 인권교육의 중요성, 인권보호의 인지, 참여활동 경험 등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의 인권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교(2002)는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이 학교생활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을 “학생 청소년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인권 상황에 대해 인식한 정도”(p. 95)로 정의하고, 이러한 인식정도와 학교생활 만족도와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박재숙(2010)은 학교생활에서의 자유보장과 참여보장은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나, 참여보장은 주관적 행복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참여보장의 부적 영향과 관련하여 박재숙(2010)은 비록 제도적으로 학교운영 및 학교

규정 결정에 참여가 보장된다하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인 참여 경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실제 참여를 저해하는 각종 규율 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학생의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만 설정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 3. 연구문제의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여기서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태도(attitudes)는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특정 사물이나 대상에 대해 갖는 태도는 그 대상을 평가하는데 있어 단순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태도는 주변의 사물이나 대상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스키마(schema)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그 사물이나 대상에 대한 차후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Michener & DeLamater, 1999; Schuman, 1995).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태도는 “특정 대상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경향(predisposition)”으로 정의된다(Michener & DeLamater, 1999; p. 131). 이러한 태도는 특정 대상의 명칭(label)과 관련된 일련의 인지 구조, 대상에 대한 정의적(affective) 혹은 평가적(evaluative)요소, 그리고 특정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경향(behavioral tendency)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을 인권에 대한 태도에 적용하면, 인권 태도는 기본적으로 인권이라는 주제와 관련한 일련의 인지적 요소, 인권이라는 용어와 관련지어질 수 있는 요소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인권과 관련하여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의 형성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선 특정 대상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보상을 경험한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지닐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과정은 도구적 조건형성(instrumental conditioning)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즉 특정 대상과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학습이 태도 형성의 중요한 기제이다(Michener & DeLamater,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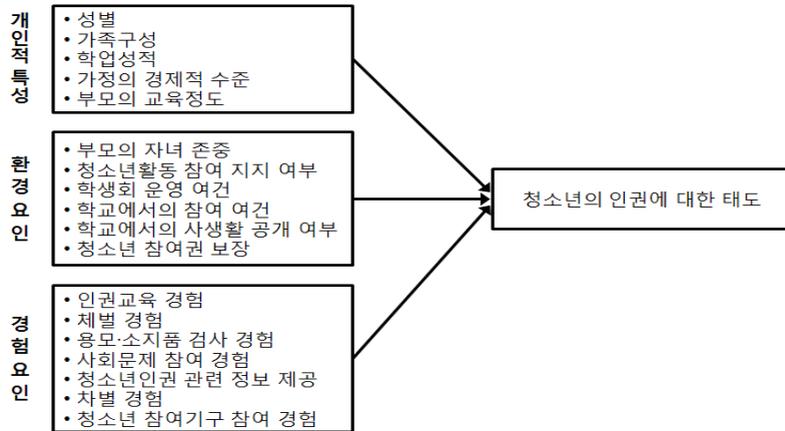
그러나 우리가 사물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 가운데 오직 일부분만이 해당 대상과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갖게 된다.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태도의 상당 부분은 제3자와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통해 얻게 된다. 이 과정에서의 제3자는 부모나 친구 등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미디어와 같은 대중매체도 포함된다. 제3자가 태도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는 Newcomb(1943)의 Bennington College 여대생에 대한 연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Bennington College의 여대생들은 비교적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반면, 그 대학의 교수들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다. 가족과의 접촉이 잦고 학교생활에 깊이 관여하지 않은 1학년 학생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다른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갖게 되면서 그들의 정치적 성향이 점차 진보적으로 변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태도형성에 있어서 가족과 교수, 친구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태도 형성 과정에서 작동하는 기제는 관찰 학습(observational learning)이다. 즉 관찰의 대상이 되는 모델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 모델이 갖고 있는 태도를 모방하게 되고 또한 관찰 대상이 보이는 특정 행동에 대해 주어지는 강화(reinforcement)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그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김영신, 2010).

태도와 관련한 사회심리학적 연구 결과들에 비춰어 볼 때,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상호작용하는 대상들은 청소년이 인권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Bronfenbrenner(1976)의 생태학적 접근은 청소년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할 지에 대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Bronfenbrenner(1976)에 따르면, 인간 발달은 성장하고 있는 개인과 그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므로, 서로 다른 환경에 처해 있는 개인들 간에 관찰되는 차이는 바로 그 환경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Bronfenbrenner는 개인의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요건이 되는 환경을 동심원 구조를 갖고 있는 4개의 하위 환경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개인이 직접적으로 속해 있는 미시환경(microsystem)은 개인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가정과 학교, 친구 등이 대표적인 미시환경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적용하면, 청소년이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친구 집단 속에서 그들이 인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험을 하였으며, 그러한 경험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은 인권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각각의 청소년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친구집단이 인권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특성의 차이 또한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태도를 조망하는데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도식화하면 【그림 II-1】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II-1】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도식

【그림 II-1】은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이론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성별, 가족 구성,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 정도가 청소년의 인권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이 속해 있는 주요 환경으로서의 학교와 가정이 갖고 있는 특성에 주목하여, 부모의 자녀 존중 여부,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가정과 학교의 지지 정도, 학교 학생회 운영 여건, 학교에서의 참여 여건, 학교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정보 공개 여부, 청소년 참여권 보장에 대한 인식 정도를 주요 변수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태도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험 관련 요인으로 인권 교육을 받은 경험, 학교와 가정, 그리고 학원 등에서의 체벌을 받은 경험, 학교에서 용모나 소지품 검사를 받은 경험, 사회문제 참여 경험, 차별을 받은 경험, 청소년특별회의 등과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 참여 경험이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개인적 특성, 환경 요인과 경험 요인, 그리고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각 요인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분석결과의 의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제 3 장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측정도구
3. 분석방법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13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 가운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실태조사는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률표집 방법에 따라 추출된 9,521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이다. 이 가운데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고등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35.8%인 3,411명이다.

인권의식의 형성에 있어 연령에 따른 발달상의 차이를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감안하여 (이승미, 1999),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권과 관련한 상황이나 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나 경험의 영향을 살펴보는데 더 적합할 것으로 추정되어,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고등학생 자료에 국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 가운데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만을 선택하여 살펴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III-1>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연구 대상 3,411명 가운데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은 각각 52.8%, 47.2%로 남학생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별로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거의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가족구성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89.3%가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가운데 41.5%는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 거주자의 비율은 각각 44.7%와 13.7%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의 경우 세 등급으로 구분하였을 때, 자신의 성적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3.6%, 중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9.2%이고, 성적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37.3%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각각 34.2%, 37.6%, 28.2%가 상, 중, 하로 응답하였다.

표 III-1 연구대상 표본의 특성

변 수	구 분	사례수(N)	백분율(%)
성 별	남	1,803	52.8
	여	1,608	47.2
학 년	1학년	1,143	33.5
	2학년	1,145	33.6
	3학년	1,123	32.9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3,041	89.3
	한부모가정	308	9.0
	조손가정	21	0.6
	기 타	36	1.1
거주지역	대도시	1,416	41.5
	중소도시	1,527	44.7
	읍면지역	469	13.7
학업성적	상	803	23.6
	중	1,333	39.2
	하	1,268	37.3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165	34.2
	중	1,279	37.6
	하	961	28.2

## 2. 측정도구

### 1)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는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와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아동·청소년실태조사에서는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7가지의 인권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 7가지 상황에 대한 응답결과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상황에 대한 응답이 하나의 요인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각의 요인부하량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6가지 상황에 대한 응답 결과를 합산한 값으로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6개 문항의 신뢰도는 .821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

**표 III-2**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 측정 문항

구 분	요인부하량	알파계수
1.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602	.821
2.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학생회 등)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67	
3.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767	
4.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된다.	.828	
5.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778	
6.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필리핀, 중국 등)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657	

두 번째로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에서는 가정, 학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나라 전체에서 응답자 본인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는지에 대해 ‘1=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에서 ‘4=매우 존중받는다’의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이 4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시도한 결과 1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요인부하량도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수준에 대한 인식은 이 4개 문항의 응답을 합산하여 값으로 측정하였으며, 4개 문항에 대한 알파계수는 .746으로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

**표 III-3**    인권수준에 대한 인식 측정 문항

구 분	요인부하량	알파계수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1. 가정	.452	.746
2. 학교	.609	
3. 내가 살고 있는 지역	.853	
4. 우리나라 전체	.723	

## 2) 개인적 특성

본 연구에서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는 성별, 가족구성,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정도이다. 먼저 성별은 남학생을 1로, 여학생을 0으로 코딩하였으며, 가족구성은 양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를 1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코딩하였다. 학업성적은 “학생의 학업성적(2013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의 문항에 대해 ‘1=매우 못하는 수준’에서 ‘5=매우 잘하는 수준’의 5점 척도에 응답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의 질문에 대해 ‘1=매우 못 산다’에서 ‘7=매우 잘 산다’의 7점 척도에 응답한 값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교육정도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해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의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모두 응답한 경우에는 두 응답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아버지 혹은 어머니 한 분에 대해서만 응답한 경우에는 그 응답값을 사용하였다.

## 3) 환경 요인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는 환경 요인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 청소년활동 참여 지지 여부, 학생회 운영 여건, 학교에서의 참여 여건, 학교에서의 사생활 공개 여부, 청소년 참여권 보장 여부를 사용하고자 한다.

부모의 자녀 의견 존중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표 III-4>에 나타난 4개의 문항 관련한 상황에서 의사결정 시 부모님의 태도에 대해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문항들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부하량도 적절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 4개 문항의 응답을 합산한 값으로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을 측정하였으며, 이 척도의 알파계수도 .840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학교에서의 학생회 운영 여건을 측정하기 위해서 교사나 교장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기 위한 성적 요건이 있는지,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 장소 및 시간 등을 보장하는지의 3개 문항에 대하여 ‘1=그렇다’, ‘0=아니다’로 코딩하여 합산한 값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척도의 값이 높을수록 학생회 운영 여건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4** 가정에서의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 측정 문항

구 분	요인부하량	알파계수
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677	.840
2. 진학할 상급학교를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820	
3.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786	
4. 부모님(보호자)은 공부시간이나 방법(학원 또는 학습지 선택 등)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736	

학교에서의 참여 여건을 측정하기 위하여 <표 III-5>에 제시된 3가지 경우에 대해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고, 그 값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표 III-5** 학교에서의 참여 여건

구 분	요인부하량	알파계수
1. 아침 보충수업(0교시 수업), 야간자율학습, 방학 보충수업 등 추가학습은 학생이 자기 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424	.518
2.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889	
3.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규칙을 알려주고 규정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알려준다	.322	

학교에서 개인 사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공개하는지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표 III-6>의 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3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도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3개 문항의 값을 합산한 값을 사용하였다.

**표 III-6** 학교에서의 사생활 공개

구 분	요인부하량	알파계수
1. 선생님은 교육비(급식비 등)를 내지 않은 학생의 이름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583	.642
2. 학교는 학생의 징계 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한다.	.603	
3. 선생님은 개인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651	

청소년 활동 참여 지지 여부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청소년단체나 동아리 활동 참여를 얼마나 지지하고 있습니까?”의 질문에 대해 가정과 학교 각각에 대해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을 1로, 부정적인 응답을 0으로 코딩하여 두 문항의 값을 합산하였다. 따라서 이 척도의 값이 높을수록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청소년 참여권 보장은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응답한 값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 4) 경험 요인

청소년인권과 관련한 경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 체벌 경험, 용모 및 소지품 검사 경험, 사회문제 참여 경험, 청소년인권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차별 경험, 그리고 청소년 참여기구 참여 경험을 사용하였다.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인권교육과 다문화 이해 교육을 받은 횟수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인권교육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 두 문항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1로, 없는 경우는 0으로 코딩하여 두 값을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체벌 경험은 최근 1년 동안 부모(또는 보호자), 선생님, 그리고 학원 선생님께서 신체적 벌을 받거나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경우는 1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코딩하여 각각의 값을 합산한 값으로 측정하였다. 이 변수값이 높을수록 체벌 경험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학교에서의 용모 및 소지품 검사 경험은 학교에서 용모(머리 모양·길이·염색 또는 화장) 검사,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 검사, 그리고 정해진 규정에 따르지 않고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의 문항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1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0으로 코딩하여 합산한 값으로 측정하였다. 이 변수값이 높을수록 학교에서 용모 혹은 소지품 검사를 받은 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사회문제 참여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회문제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을 하는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는지,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하는지의 3개 문항에 대하여 ‘전혀 없다’와 ‘거의 없다’로 응답한 경우는 0으로, ‘가끔 있다’와 ‘자주 있다’의 경우는 1로 코딩하여 합산한 값을 사용하였다.

청소년인권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알기 쉽게 풀이한 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유엔(UN)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쉽게 알 수 있게 만든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구제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의 3개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는 1, ‘아니다’로 응답한 경우를 0으로 코딩하여 합산한 값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차별 경험 변수의 값이 높을수록 차별을 경험한 적이 많음을 의미한다.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별, 학교 성적, 나이, 가정형편, 고향이나 사는 지역, 외모나 신체조건, 종교, 부모님 부재 등의 8개 항목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는 1, ‘아니다’로 응답한 경우는 0으로 코딩하여 합산한 값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구 참여 여부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과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의 문항에 대하여 ‘1=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에서 ‘4=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로 응답한 결과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의 통계분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우선 청소년의 인권 태도, 환경 요인과 경험 요인과 관련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수들이 개인적 특성 변수들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t$ -검증이나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해 평균을 비교하거나, 개인적 특성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인권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탐색하기 위하여,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와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개인적 특성, 환경 요인, 경험 요인을 차례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즉 1단계로 개인적 특성, 2단계로 개인적 특성과 환경요인, 3단계에는 2단계에 투입된 변수들과 더불어 경험 요인 변수들을 차례로 투입하여 각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통계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SPSS for Windows(Version. 18)를 사용하였다.



## 제 4 장

---

# 분석결과

1. 고등학생의 인권 현황
2. 경험요인
3. 인권태도 결정 요인



## IV. 분석결과

### 1. 고등학생의 인권 현황

#### 1)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있어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와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학년이나 가족 구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이 척도에서 여학생들의 평균값은 19.7인 반면 남학생들은 18.5로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여러 가지 인권 상황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V-1> 참조).

**표 IV-1**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의 개인적 특성별 차이

변 수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성 별	남	1,792	18.5	3.65	-11.477***
	여	1,606	19.7	2.56	
학 년	1학년	1,143	19.1	3.20	1.703
	2학년	1,141	18.9	3.24	
	3학년	1,121	19.1	3.2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3,031	19.1	3.16	.988
	기타	364	18.9	3.80	

\*\*\*  $p < .001$

또한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는 학교 성적, 부모의 교육정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학교 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응답자들은 인권상황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

표 IV-2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와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변 수		학교성적	경제적 수준	부모교육정도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	상관계수	.111***	.011	.050**
	N	3,394	3,396	3,115

\*\*  $p < .01$ , \*\*\*  $p < .001$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은 성별이나 학년에 따른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지만 가족구성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양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의 고등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고등학생들보다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3> 참조). 이러한 차이는 한부모 혹은 조부모 가정의 고등학생의 경우 양부모 가정의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모의 관심을 적게 받거나 가사예의 참여 부담이 더 커짐으로 인해 자신이 충분히 존중받고 있지 못하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IV-3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의 개인적 특성별 차이

변 수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성 별	남	1,792	11.5	3.65	-.255
	여	1,606	11.6	2.56	
학 년	1학년	1,143	11.7	1.92	2.631
	2학년	1,141	11.5	2.08	
	3학년	1,121	11.6	2.0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3,037	11.6	1.99	4.206***
	기타	364	11.1	2.21	

\*\*\*  $p < .001$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은 학교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정도와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표 IV-4> 참조). 이는 학교 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 IV-4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과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변 수		학교성적	경제적 수준	부모교육정도
인권수준에 대한 인식	상관계수	.220***	.194**	.127**
	N	3,400	3,400	3,120

\*\*  $p < .01$ , \*\*\*  $p < .001$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 성적이 자신이 존중받는지의 여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을 대하는데 있어 성적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나 부모의 교육수준도 자녀의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 환경 요인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에 있어서의 실태와 관련하여, 먼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지의 여부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정에서의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 정도는 자녀의 성별, 학년, 가족구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V-5> 참조).

표 IV-5 가정에서의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의 개인적 특성별 차이

변 수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성 별	남	1,800	12.1	2.37	-3.077**
	여	1,607	12.4	2.38	
학 년	1학년	1,142	12.2	2.32	7.975***
	2학년	1,144	12.0	2.47	
	3학년	1,122	12.4	2.3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3,039	12.3	2.33	3 > 2 <sup>1)</sup> 2.547*
	기타	363	11.9	2.69	

\*  $p < .05$ , \*\*  $p < .01$ , \*\*\*  $p < .001$

1) Scheffe 사후검증에 따른 집단별 차이

우선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부모가 자신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고등학교 3학년은 2학년보다 더 존중받는다고 생각하였으며, 양부모가정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

다 더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부모의 견해에 대해 수용적인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 고3 학생들의 자녀의견 존중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대학입시나 취업 등에 직면해 있는 이들의 부모들이 자녀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 정도는 자녀의 학교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정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6> 참조). 즉 자녀의 성적이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자신의 의견에 대한 존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성적과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부모들이 자녀의 성적이 좋을수록 자녀 스스로 자신과 관련한 문제를 잘 알아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학교성적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뢰를 획득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IV-6 가정에서의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과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관계

변 수		학교성적	경제적 수준	부모교육정도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	상관계수	.174***	.157***	.098***
	N	3,402	3,402	3,120

\*\*\*  $p < .001$

학교에서의 학생회 운영 여건에 대한 인식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학교에서의 학생회 여건이 더 나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표 IV-7> 참조). 이와 더불어 가족구성에 따라라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양부모가정의 자녀들이 학생회 운영 여건이 더 나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한부모 혹은 조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의 학생회 참여 정도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IV-7 학생회 운영 여건의 개인적 특성별 차이

변 수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성 별	남	1,799	.68	.87	2.468*
	여	1,608	.61	.83	
학 년	1학년	1,143	.61	.84	2.561
	2학년	1,142	.68	.87	
	3학년	1,122	.66	.84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3,037	.66	.84	2.084*
	기타	363	.57	.80	

\*  $p < .05$

학생회 운영 여건에 대한 인식정도는 응답자의 학교성적 및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8> 참조). 즉 학생의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회 운영 여건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이 비교적 경제적으로 부유한 학생들이 학생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IV-8 학생회 운영 여건과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변 수	상관계수	학교성적	경제적 수준	부모교육정도
학생회 운영 여건	<i>N</i>	.088***	.083***	.031
		3,399	3,400	3,120

\*\*\*  $p < .001$

표 IV-9 학교에서의 참여 여건의 개인적 특성별 차이

변 수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성 별	남	1,796	7.3	2.04	-1.538
	여	1,608	7.4	1.79	
학 년	1학년	1,140	7.5	1.93	2.500
	2학년	1,142	7.4	1.93	
	3학년	1,122	7.3	1.92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3,034	7.4	1.93	1.731
	기타	364	7.2	1.92	

학교에서의 참여 여건과 관련하여서는 성별이나 학년, 그리고 가족구성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학교성적과 부모의 교육정도와는 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9> 및 <표 IV-10> 참조).

**표 IV-10** 학교에서의 참여 여건과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변 수		학교성적	경제적 수준	부모교육정도
학교에서의 참여 여건	상관계수	.085***	.025	.049**
	N	3,398	3,398	3,120

\*\*  $p < .01$ , \*\*\*  $p < .001$

학교에서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정도에 대한 개인적 특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이, 1학년이나 3학년보다는 2학년들이 학교에서 개인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더 공개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1> 참조).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할 수 있지만, 우선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에 대한 지도에 있어서 보다 직접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인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또한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하여야 하는 1학년과 대학입시나 취업을 앞둔 3학년보다는 2학년 학생들에 대한 지도에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지도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IV-11** 학교에서의 사생활 공개의 개인적 특성별 차이

변 수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성 별	남	1,783	6.2	2.28	2.838**
	여	1,604	6.0	2.06	
학 년	1학년	1,135	5.9	2.10	16.098*** 2) 1.3 <sup>1)</sup>
	2학년	1,136	6.4	2.31	
	3학년	1,116	6.0	2.1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3,023	6.1	2.18	-.954
	기타	359	6.2	2.18	

\*\*  $p < .01$ , \*\*\*  $p < .001$

1) Scheffe 사후검증에 따른 집단별 차이

학교에서의 사생활 공개 여부와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부모의 교육정도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부모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IV-12> 참조).

**표 IV-12 학교에서의 사생활 공개와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변 수		학교성적	경제적 수준	부모교육정도
학교에서의 사생활 공개	상관계수	.021	-.020	-.088***
	N	3,382	3,383	3,102

\*\*\*  $p < .001$

청소년들이 인권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실제 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청소년 단체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활동한다는 측면에서 인권 태도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표 IV-13 청소년 활동 참여 지지의 개인적 특성별 차이**

변 수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성 별	남	1,796	4.9	1.62	-3.020**
	여	1,607	5.0	1.51	
학 년	1학년	1,141	5.3	1.52	55.880***
	2학년	1,142	5.0	1.51	
	3학년	1,120	4.6	1.6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3,036	5.0	1.55	1)2)3) <sup>1)</sup>
	기타	362	4.7	1.71	

\*\*  $p < .01$ , \*\*\*  $p < .001$

1) Scheffe 사후검증에 따른 집단별 차이

실제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가정과 학교의 지지 정도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학년의 경우 3학년보다는 2학년이, 2학년보다는 1학년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학입시에 전념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족구성에 있어서도 양부모가정의 청소년들이 한부모 혹은 조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에 비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한부모 혹은 조부모 가정의 경우 가정의 대소사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관여할 것을 요구받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표 IV-13> 참조).

청소년활동 참여 지지 정도와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학교성적, 경제적 수준, 부모교육정도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4> 참조). 즉 학교 성적이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14** 청소년 활동 참여 지지와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변 수		학교성적	경제적 수준	부모교육정도
청소년활동 참여 지지	상관계수	.190 <sup>***</sup>	.100 <sup>***</sup>	.099 <sup>***</sup>
	N	3,396	3,397	3,116

\*\*\*  $p < .001$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참여권 보장에 대한 인식의 경우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이나 가족구성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IV-15> 참조).

**표 IV-15** 참여권 보장의 개인적 특성별 차이

변 수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성 별	남	1,798	2.2	.92	-.041
	여	1,608	2.2	.88	
학 년	1학년	1,141	2.3	.89	7.115 <sup>**</sup>
	2학년	1,142	2.2	.90	
	3학년	1,123	2.1	.9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3,038	2.2	.89	-5.500
	기타	364	2.2	.99	

\*\*  $p < .01$

1) Scheffe 사후검증에 따른 집단별 차이

학년에 따른 차이에 대한 Scheffe 검증 결과를 보면, 1학년과 2학년 사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1학년과 2학년 모두 3학년보다는 참여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대학입시 등과 같은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의 경우 참여권과 같은 문제에 대한 관심이 1, 2학년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참여권 보장에 대한 인식정도는 학교성적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것과 켈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학업 성적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 주요 관심이 학업성적에 놓여 있어 참여권에 대한 관심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IV-16 참여권 보장과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변 수		학교성적	경제적 수준	부모교육정도
청소년 참여권 보장	상관계수	-.057**	.013	-.015
	N	3,402	3,402	3,121

\*\* p<.01

지금까지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적인 요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개인적 특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한 내용은 <표 IV-17>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17 환경 요인과 개인적 특성과의 관계 요약

구 분	평균 비교			상관관계		
	성별	학년 <sup>1)</sup>	가족구성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정도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	여>남	3>2	양부모>기타	+	+	+
학생회 운영 여건	남>여	n.s. <sup>2)</sup>	양부모>기타	+	+	n.s.
학교에서의 참여 여건	n.s.	n.s.	n.s.	+	n.s.	+
학교에서의 사생활 공개	남>여	2>1,3	n.s.	n.s.	n.s.	-
청소년활동 참여 지지	여>남	1>2>3	양부모>기타	+	+	+
청소년 참여권 보장	n.s.	1,2>3	n.s.	-	n.s.	n.s.

1) 학년에서의 숫자는 1학년, 2학년, 3학년을 의미함

2) n.s.(not significant)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거나,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함

## 2. 경험 요인

청소년들이 인권과 관련하여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요인들은 인권과 관련한 직접적인 경험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경험 요인들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인권교육 경험과 관련하여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더 많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3학년 학생보다는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이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8> 참조).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여성이 사회적인 약자의 입장에 놓여 있다는 인식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아직 고등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그 자체로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입시에 직면해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시행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18 인권교육 경험의 개인적 특성별 차이

변 수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성 별	남	1,760	.75	.86	-2.362*
	여	1,585	.82	.84	
학 년	1학년	1,129	.88	.87	17.355**
	2학년	1,112	.80	.84	
	3학년	1,105	.67	.83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2,995	.79	.86	1.382
	기타	346	.73	.84	

\*  $p < .05$ , \*\*  $p < .01$

1) Scheffe 사후검증에 따른 집단별 차이

인권교육 경험과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정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상관관계는 관찰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변수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8> 참조).

**표 IV-19** 인권교육 경험과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변 수		학교성적	경제적 수준	부모교육정도
인권교육 경험	상관계수	.004	.008	.020
	N	3,341	3,341	3,070

인권에 대한 태도를 갖는데 있어서 차별 경험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특히 거의 모든 차별은 그 특성상 차별을 받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압적으로 행해지게 되며, 따라서 차별을 받는 당사자의 인권이 이 과정에서 무시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경우 차별 경험은 그들의 개인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이 가정이나 학교, 또는 학원에서 신체적인 벌을 받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로 볼 때는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양부모가정보다는 한부모 조부모 등 기타 유형의 경우에 차별을 받은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0> 참조).

**표 IV-20** 차별경험의 개인적 특성별 차이

변 수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성 별	남	1,617	1.5	1.51	5.398***
	여	1,461	1.2	1.34	
학 년	1학년	1,055	1.6	1.56	24.315***
	2학년	1,029	1.4	1.38	
	3학년	994	1.1	1.32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2,765	1.3	1.43	-2.180***
	기타	307	1.5	1.49	

\*\*\*  $p < .001$

1) Scheffe 사후검증에 따른 집단별 차이

한 가지 특기할 점은 차별을 받은 정도는 학업성적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표 IV-21> 참조), 이는 학업성적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가정이나 학교 또는 학원에서 차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V-21 체벌경험과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변 수		학교성적	경제적 수준	부모교육정도
체벌 경험	상관계수	.055**	.007	.030
	N	3,071	3,072	2,829

\*\*  $p < .01$

학교, 가정 또는 학원에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의 평균이 1을 초과한다는 것은 적어도 위의 3가지 환경 가운데 하나 이상에서 체벌을 받은 적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체벌은 우리나라 고등학생에게서 비교적 광범위하게 관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체벌이 학교현장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으며 가정이나 학원 등에서의 체벌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청소년의 인권 신장과 관련하여 체벌의 의미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논의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학교에서 용모 또는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가의 여부와 개인적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용모나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더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학년별로는 2학년이나 3학년보다는 1학년의 응답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IV-22> 참조).

표 IV-22 학교 용모·소지품검사 경험의 개인적 특성별 차이

변 수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성 별	남	1,799	1.2	1.06	-8.576***
	여	1,607	1.5	.99	
학 년	1학년	1,142	1.5	1.04	15.383***
	2학년	1,144	1.3	1.06	
	3학년	1,119	1.3	1.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3,037	1.4	1.0	-.441
	기타	363	1.4	1.0	

\*\*\*  $p < .001$

1) Scheffe 사후검증에 따른 집단별 차이

이러한 결과는 학교 현장에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용모나 소지품 검사가 더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저학년의 경우에 용모 또는 소지품 검사가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23** 학교 용모·소지품검사 경험과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변 수		학교성적	경제적 수준	부모교육정도
용모·소지품 검사	상관계수	-.034*	.017	.035
	N	3,399	3,399	3,119

\*  $\alpha .05$

학교에서의 용모나 소지품 검사 경험 정도는 학교성적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3> 참조). 즉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용모나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현장에서 학업성적이 표상하는 의미 가운데 하나가 학업성적이 좋은 학생은 용모나 소지품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며, 이러한 인식이 용모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교사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문제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을 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갖거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고, 사회문제와 관련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하는 정도는 성별, 학년, 가족구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3학년보다는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이, 그리고 양부모가정의 청소년들이 사회문제 참여 경험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4> 참조).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관련하여, 사회문제와 관련한 상황에서도 여학생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경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학년의 사회문제 참여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은 대학입시 등을 준비하여야 하는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서의 다른 변수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양부모가정의 청소년들의 경우 다른 형태 가정의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하게, 여러 사회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도 부모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IV-24 사회문제 참여 경험의 개인적 특성별 차이

변 수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성 별	남	1,797	4.8	1.92	-2.124*
	여	1,607	4.9	1.82	
학 년	1학년	1,142	5.0	1.91	7.691***
	2학년	1,140	4.7	1.90	
	3학년	1,122	4.7	1.79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3,037	4.9	1.89	-3.038**
	기타	363	4.5	1.72	

\*  $p < .05$ , \*\*  $p < .01$ , \*\*\*  $p < .001$

1) Scheffe 사후검증에 따른 집단별 차이

사회문제 참여 정도는 학교성적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정의 경제적 수준 및 부모의 교육정도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5> 참조). 학업성적과의 관계는 다른 유사한 변수들에서 나타난 결과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거나 또는 이와 관련하여 행동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 속에서 여기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학업에 투자되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들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참여경험과 학업성적과는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높거나 교육정도가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문제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자녀의 관심을 지지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서서와 같은 정적인 관계가 관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IV-25 사회문제 참여 경험과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변 수	상관계수	학교성적***	경제적 수준***	부모교육정도***
사회문제 참여 경험		-.113**	.061***	.094***
	N	3,400	3,400	3,120

\*\*\*  $p < .001$

인권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년과 가족구성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6> 참조). 즉 3학년보다는 1학년이나 2학년이 인권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정의 학생들이 인권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6 인권관련 정보 제공 경험의 개인적 특성별 차이

변 수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성 별	남	1,799	.47	.84	-1.120
	여	1,607	.50	.84	
학 년	1학년	1,142	.57	.89	11.424***
	2학년	1,141	.49	.86	
	3학년	1,123	.40	.76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3,038	.49	.85	2.068*
	기타	364	.41	.79	

\*  $\alpha,05$ , \*\*\*  $\alpha,001$

1) Scheffe 사후검증에 따른 집단별 차이

특히 학교성적과 관련해서는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인권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앞서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성적이 높을수록 인권은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인권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은 부모의 교육정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부모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자녀들도 인권과 관련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IV-27 인권관련 정보 제공 경험과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변 수	상관계수	학교성적	경제적 수준	부모교육정도
인권정보 제공		-.037*	.029	.040*
	N	3,402	3,403	3,120

\*  $\alpha,05$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통하여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에게 8가지 상황에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평균값이 1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상황에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별 경험은 성별과 가족구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표 IV-28> 참조), 우선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상황의 수가 더 많았으며, 양부모가정보다는 기타 유형 가정의 청소년들도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상황의 수가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들과 양부모와 함께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28 차별경험의 개인적 특성별 차이

변 수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성 별	남	1,794	1.6	1.76	-4.933***
	여	1,603	1.9	1.67	
학 년	1학년	1,140	1.8	1.72	2.821
	2학년	1,140	1.8	1.78	
	3학년	1,117	1.6	1.6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3,033	1.7	1.69	-3.038***
	기타	361	2.0	1.98	

\*\*\*  $p < .001$

표 IV-29 차별경험과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변 수	상관계수	학교성적	경제적 수준	부모교육정도
차별 경험	상관계수	-.116***	-.073***	-.073***
	N	3,393	3,395	3,112

\*\*\*  $p < .001$

이러한 차별 경험은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정도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표 IV-29> 참조). 이러한 결과는 학교 성적이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공부를 잘 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혹은 부모의 교육정도가 높은 경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서, 이러한 모습은 우리사회의 차별과 관련한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특별회의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의 참여기구에 참여한 경험은 '1=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에서 '4=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로 측정되었다. 여기서 <표 IV-30>에 제시된 것처럼 각 집단 별 평균값이 1.5 정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참여 기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 설령 이름은 들어보았다 하더라도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물론 청소년 참여기구가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존재하고 있지도 않지만, 그나마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청소년 참여기구에의 참여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참여기구에의 참여 경험은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1학년이나 2학년이 3학년보다 참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정 청소년들의 참여 경험도 그렇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0 청소년 참여기구 참여 경험의 개인적 특성별 차이

변 수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성 별	남	1,797	1.5	.74	-1.849
	여	1,608	1.5	.73	
학 년	1학년	1,142	1.5	.77	11.901***
	2학년	1,139	1.5	.78	1.2)3 <sup>1)</sup>
	3학년	1,123	1.4	.63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3,037	1.5	.74	3.172**
	기타	364	1.4	.65	

\*\*  $p < .01$ , \*\*\*  $p < .001$

아울러 청소년 참여기구 참여 경험은 학교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정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표 IV-31> 참조). 특히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참여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연 이러한 관계가 단지 인식 수준의 차이 때문인지 실제 참여 경험에서의 차이 때문인지를 향후 보다 정밀하게 설계된 문항을 사용하여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IV-31 청소년 참여기구 참여 경험과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변 수		학교성적	경제적 수준	부모교육정도
청소년 참여기구 참여 경험	상관계수	.052**	.059**	.039*
	N	3,400	3,400	3,120

\*  $p < .05$ , \*\*  $p < .01$

지금까지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험 요인들과 개인적 특성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표 IV-32>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표 IV-32** 환경 요인과 개인적 특성과의 관계 요약

구 분	평균 비교			상관관계		
	성별	학년 <sup>1)</sup>	가족구성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정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	여>남	1,2>3	n.s.	n.s.	n.s.	n.s.
체벌 경험	남>여	1>2>3	양부모>기타	+	n.s.	n.s.
학교 용모·소지품 검사 경험	여>남	1>2,3	n.s.	-	n.s.	n.s.
사회문제 참여 경험	여>남	1,2>3	양부모>기타	-	+	+
인권정보 제공 경험	n.s.	1,2>3	양부모>기타	-	n.s.	+
차별 경험	여>남	n.s.	기타>양부모	-	-	-
청소년 참여기구 참여 경험	n.s.	1,2>3	양부모>기타	+	+	+

1) 학년에서의 숫자는 1학년, 2학년, 3학년을 의미함

2) n.s.(not significant)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거나,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함

### 3. 인권태도 결정 요인

앞 절에서는 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요인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요인들이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태도를 중심으로 앞서 언급했던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태도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와 인권수준에 대한 인식 정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두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1단계로 성별, 학년, 가족구성,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정도의 6개 변수로 구성된 개인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2단계로 1단계에 투입된 변수에 추가하여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 학생회 운영 여건, 학교에서의 참여 여건, 학교에서의 사생활 공개,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지지의 6개 변수로 구성된 환경 요건을 투입하고, 3단계로 2단계까지 투입된 변수와 더불어 인권교육 경험, 체벌 경험, 학교에서의 용모·소지품 검사, 사회문제 참여 경험, 인권정보 제공받은

경험, 차별 경험, 청소년 참여기구 참여 경험의 7개 변수로 이루어진 경험 요인들을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통하여 각 변수들이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청소년의 인권 상황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본 조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33>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1단계에서 개인적 특성 변수만을 투입하였을 경우, 청소년의 인권 상황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개인 특성 변수를 통제된 상황에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청소년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으며( $\beta = -.199, p < .000$ ),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인권 상황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beta = .101, p < .000$ ).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인권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반면( $\beta = -.113, p < .05$ ), 부모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인권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24, p < .05$ ).

개인적 특성 변수와 더불어 환경 요인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함께 투입한 2단계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1단계에서와 같이 청소년의 성별,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청소년의 인권 상황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 학교에서의 참여 여건, 청소년활동 참여 지지 정도의 3개 변수가 환경 요인들 가운데 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인권 상황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beta = .134, p < .000$ ), 학교에서의 참여 여건이 많이 보장될수록 인권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48, p < .05$ ). 또한 가정이나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과 같은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인권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53, p < .000$ ). 반면에 학생회 참여 여건, 학교에서의 사생활 공개 여부, 청소년 참여권 보장 여부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개인적 특성 변수, 환경 요인 변수와 더불어 경험 요인 변수들을 함께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와 2단계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특성 변수 중에는 성별,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 요인 변수 중에는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 학교에서의 참여 여건, 청소년활동 참여 지지 여부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변수들에 대한 회귀계수에 나타난 관계성의 방향도 1단계와 2단계, 그리고 3단계에서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났다. 경험 요인 가운데에는 학교에서의 용모·소지품 검사와 사회문제 참여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에서 용모나 소지품 검사를 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인권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고( $\beta = .043, p < .05$ ), 사회문제 참여 경험이 많을수록 인권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56, p < .01$ ).

표 IV-33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 회귀분석 결과

변 수	모형1		모형2		모형3	
	b(SE)	$\beta$	b(SE)	$\beta$	b(SE)	$\beta$
성별	-1.212(.114)	-.199	-1.118(.111)	-.184	-1.067(.114)	-.176
가족구성	-.151(.205)	-.014	-.252(.200)	-.024	-.273(.200)	-.025
학업성적	.308(.058)	.101	.168(.058)	.055	.160(.058)	.053
경제적 수준	-.113(.056)	-.042	-.169(.055)	-.062	-.171(.055)	-.063
부모교육	.124(.057)	.043	.082(.055)	.029	.063(.056)	.022
학년	.008(.069)	.002	.088(.069)	.024	.106(.070)	.029
부모존중			.176(.025)	.134	.174(.026)	.132
학생회			.044(.065)	.013	.038(.065)	.011
학교참여			.077(.030)	.048	.080(.031)	.050
사생활			-.041(.026)	-.029	-.046(.027)	-.033
참여지지			.300(.038)	.153	.272(.039)	.139
참여보장			.063(.063)	.018	.062(.063)	.018
인권교육					-.014(.067)	-.004
체벌					-.009(.044)	-.004
용모검사					.127(.057)	.043
참여경험					.090(.032)	.056
인권정보					.009(.069)	.002
차별경험					-.024(.036)	-.013
참여기구					.044(.078)	.011
Constant	18.978		15.542		15.179	
R <sup>2</sup>	.051		.108		.113	
N	2,736		2,736		2,736	
F	24.419		27.585		18.270	

\*  $p < .05$ , \*\*  $p < .01$ , \*\*\*  $p < .001$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에 대해 학업성적은 부적인 영향을, 학교에서 용모나 소지품 검사를 받은 경험은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학업성적과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 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 용모나 소지품 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인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험이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인권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결과는 이러한 일반적인 예상과는 어긋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2) 청소년의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종속변수로 하여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IV-3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개인적 특성 요인들이 투입된 1단계 분석에서는 가족구성,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별이나 학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들보다 인권수준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 ( $\beta = .042, p < .05$ ),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인권 수준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47, p < .000$ ). 또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beta = .115, p < .000$ ), 그리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beta = .055, p < .01$ ),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자신의 인권이 더 존중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1단계에 투입된 개인적 특성 변수들과 함께 환경 요인 변수들을 함께 설명변수로 사용한 2단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적 특성 변수 가운데에는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 그리고 학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단계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던 가족구성은 2단계에서 환경 요인 변수들의 투입과 함께 그 영향력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지고, 오히려 학년 변수가 새롭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험 요인이 함께 투입된 3단계에서 학년 변수는 다시 통계적 유의미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나 2단계의 결과는 투입된 변수들 간의 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 요인 변수 가운데 청소년의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가정에서의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 학교에서의 참여 여건, 학교에서의 사생활 공개, 청소년 활동 참여 지지, 그리고 청소년 참여권 보장 변수들이었으며, 학생회 운영 여건 변수는 6개 환경 요인 변수들 가운데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자녀 의견 존중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들은 자신들의 인권이 더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beta = .259, p < .000$ ), 학교에서의 참여 여건이 좋을수록 자신들의 인권 수준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beta = .156, p < .000$ ).

또한 학교에서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경우가 많을수록 학생들은 인권수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137, p < .000$ ),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가정과 학교에서 지지를 받을수록( $\beta = .121, p < .000$ ), 그리고 청소년 참여권을 보장받겠다고 생각할수록 자신들의 인권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beta = .121, p < .000$ ). 이러한 결과는 앞서 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인권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적 특성 변수 및 환경 요인 변수와 함께 경험 요인 변수들을 투입한 3단계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적 특성의 경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은 1단계 및 2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인권수준에 대한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환경 요인 변수들도 3단계에서도 유사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 학교에서의 참여 여건, 청소년 활동 참여에 대한 지지 및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은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사생활 공개 여부는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 투입된 경험 요인의 경우, 모두 7개의 변수 가운데 체벌 경험과 차별 경험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체벌 경험 경험은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beta = -.080, p < .000$ ), 차별 경험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beta = -.152, p < .000$ ). 즉 가정이나 학교 또는 학원에서 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을 듣는 경우가 많을수록, 그리고 개인적인 특성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을 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이 인권이 상대적으로 덜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 경험과 차별 경험은 인권 관련 경험으로는 부정적인 경험으로서 청소년의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 교육을 받은 정도, 사회문제 참여 경험, 인권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청소년 참여기구 참여 경험은 청소년들의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험 요인 변수보다는 환경 요인 변수들이 청소년의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4 인권수준에 대한 인식 회귀분석 결과

변 수	모형1		모형2		모형3	
	b(SE)	$\beta$	b(SE)	$\beta$	b(SE)	$\beta$
성별	-.050(.073)	-.013	.062(.066)	.016	.045(.066)	.012
가족구성	.289(.132)	.042 <sup>*</sup>	.199(.118)	.092	.114(.116)	.016
학업성적	.287(.037)	.147 <sup>***</sup>	.178(.034)	.091 <sup>***</sup>	.140(.034)	.072 <sup>***</sup>
경제적 수준	.200(.036)	.115 <sup>***</sup>	.145(.032)	.083 <sup>***</sup>	.141(.032)	.081 <sup>***</sup>
부모교육	.100(.036)	.055 <sup>**</sup>	.043(.033)	.023	.044(.032)	.024
학년	.050(.045)	.021	.097(.041)	.041 <sup>*</sup>	.061(.040)	.026
부모존중			.220(.015)	.259 <sup>***</sup>	.192(.015)	.227 <sup>***</sup>
학생회			.044(.038)	.019	.035(.038)	.015
학교참여			.161(.018)	.156 <sup>***</sup>	.138(.018)	.134 <sup>***</sup>
사생활			-.125(.015)	-.137 <sup>***</sup>	-.089(.016)	-.098 <sup>***</sup>
참여지지			.153(.022)	.121 <sup>***</sup>	.142(.023)	.113 <sup>***</sup>
참여보장			.267(.037)	.121 <sup>***</sup>	.251(.037)	.114 <sup>***</sup>
인권교육					.021(.039)	.009
체벌					-.110(.025)	-.080 <sup>***</sup>
용모검사					.017(.033)	.009
참여경험					.027(.019)	.026
인권정보					.049(.040)	.021
차별경험					-.175(.021)	-.152 <sup>***</sup>
참여기구					.019(.045)	.007
Constant	9.145		5.368		6.249	
R <sup>2</sup>	.056		.249		.281	
N	2,739		2,739		2,739	
F	27.118 <sup>***</sup>		75.438 <sup>***</sup>		55.878 <sup>***</sup>	

\*  $p < .05$ , \*\*  $p < .01$ , \*\*\*  $p < .001$



# 제 5 장



##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2. 정책 제언



## V. 결 론

### 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각각의 변수들과 관련한 현황을 살펴보고, 개인적 특성과 환경 요인, 그리고 경험 요인들이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우선 청소년의 인권 상황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더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특히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본 연구의 결과는 류지현·허창영(2008)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데, 류지현·허창영(2008)은 이를 여학생들이 인권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남학생들보다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왜 남학생과 여학생이 인권 상황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있지 않지만,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인권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남녀 간의 차이가 단지 여성이 남성보다 더 수용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성장 과정 즉 사회화 과정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기 때문인지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 혹은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인권 상황에 대한 태도와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 정도는 모두 학업성적과 부모의 교육 정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인권에 대한 태도를 설명함에 있어 학업성적이나 부모의 교육정도와 같은 개인적 특성이나 배경 요인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권수준에 대한 인식의 경우 양부모가정의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들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는 가족 구성에 따른 가족 관계의 성격이 청소년들의 인권 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환경적 요인들과 개인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과 청소년활동 지지 정도가 더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이 학생회 운영 여건이 더 좋고 학교에서의 사생활 공개 정도가 더 높다고 응답하였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여학생들의 경우 부모나 학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남학생들보다 더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과연 단순히 남녀 간의 생물학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화 과정에서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학년에 따른 환경 요인의 차이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학업 이외의 별도의 시간이나 노력을 필요로 하는 활동과 관련한 여건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3학년의 응답이 다른 학년보다 일관성 있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무리 청소년 인권이 중요하고 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해 학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아직 학교 현장에서는 대학입시 또는 취업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학업성적의 경우도 청소년 참여권 보장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 결과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 정도, 학생회 운영 여건과 청소년활동 참여 지지에 있어서 양부모가정의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들에 비해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서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학교나 청소년활동보다는 가정 일에 더 많이 관여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구받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경험 요인들의 경우 차별 경험에 있어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많이 차별을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나,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 학교에서 용모·소지품 검사를 받은 경험, 사회문제 참여 경험, 차별 경험에 있어서는 여학생들의 응답 수준이 남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권과 관련한 경험 요인에 있어서 남녀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있어 사회적 혹은 문화적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경험 요인들과 학년 및 학업성적과의 관계는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 차별 경험, 학교에서의 용모·소지품 검사 경험, 사회문제 참여 경험, 인권정보를 제공 받은 경험, 청소년 참여기구 참여 경험에 있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다른 학년 학생들에 비해 일관성 있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권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결과는 학교 현장에서 인권 문제가 대학입시나 취업 준비보다 결코 우선 순위를 잡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학업성과 경험요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회문제 참여 경험, 인권정보 제공 경험 등과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업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사회문제에 덜 참여하고 인권정보를 제공받는데 덜 관심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인권 문제가 여전히 부차적인 관심사에 머물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인해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매우 고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에서는 학업성적을 높이는데, 혹은 대학입시나 취업을 준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 문제는 대학입시나 취업에 직접적으로 당면하지 않은 저학년 학생들에게 더 밀접한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특성 가운데 성별과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의 경우에는 3단계 모형 모두에서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인권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가 단순히 다수의 독립변수가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계적인 부수물(artifact)인지 실질적인(substantial) 의미를 지니는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결과를 놓고 보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 청소년의 사회문제 참여나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조직의 결성,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 성평등,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별 금지, 국내 외국인에 대한 동일한 교육기회 부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더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무관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의 경제적 성공에 따른 부의 대물림을 당연시하면서 앞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해석이 보다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의 부모의 자녀 의견 존중, 학교에서의 참여 여건,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가정과 학교에서의 지지는 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긍정적인 환경 요인이 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가정에서의 크고 작은 일이나 자신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부모가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가의 여부는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그러한 의견에 대해 성인으로부터 의미있는 의견으로 존중받는 기회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과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지지를 얻는 것 모두 궁극적으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에 대해 성인들로부터 일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환경 요인과 관련한 회귀분석 결과는 이러한 인정의 기회를 갖고 있는가의 여부가 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인권 상황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7개의 경험 요인 가운데 학교에서의 용모·소지품 검사 경험과 사회문제 참여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환경 요인 변수의 영향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환경 요인 변수들이 경험 요인 변수들보다는 청소년의 인권 상황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데 더 유용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즉 청소년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친인권적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김영신(2010)의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친인권적 교실문화가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앞서 청소년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태도의 경우와 유사하게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의 경험 요인보다는 환경 요인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험 요인 가운데에는 단지 2개의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지만, 환경 요인의 경우에는 회귀식에 투입된 6개의 변수 가운데 5개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요인 변수의 표준화 회귀계수 값( $\beta$ )도 경험요인 변수의 표준화 회귀계수 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표준화 회귀계수 값만으로 회귀식에 투입된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경험 요인 변수들보다는 환경 요인 변수들의 영향이 더 의미가 있음이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청소년들의 인권 수준에 대한 평가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경험은 그리 중요시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긍정적인 경험보다는 부정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반면, 환경적 여건의 경우에는 인권신장에 도움이 되는 환경 속에서 직접적으로 인권을 확보하고 향유하는 경험이 없더라도 단순히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는 인식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인권수준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경험보다는 오히려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되는 환경적 여건을 조성하고 그 내용을 청소년들에게 숙지시키는 것이 더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2. 정책 제언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몇 가지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친인권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난 결과는 친인권적 학교 환경이 청소년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는 물론 자신의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즉 학교의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고 바꾸는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며, 또 변경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고지하는 등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서로 논의하고 개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실제 그러한 의견에 대해 교사와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은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앞서 언급한 내용들의 대부분이 이미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첨예한 정치적 대립은 그 내용을 학교현장에서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가운데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은 상대적으로 의견대립이 덜 심각한 사안을 중심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친인권적 학교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교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육행정가,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서로 합의하여 학교 현장에 도입할 수 있는 사안들을 찾아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 결과를 공표하는 작업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시도는 학교관리자나 교사들에게는 추가적인 업무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학교 관리자 또는 교원에 대한 업무평가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유인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학교에서의 인권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전히 학교현장에서는 대학입시 또는 취업 준비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간주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3 학생이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경우에는 친인권적 학교 문화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인권 교육은 특정 학년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년의 모든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인권 교육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권 교육의 내용을 시험이나 평가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등 직접적인 활동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권교육을 고등학교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사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의 교사는 매우 의미 있는 존재이지만, 학생 청소년의 인권 신장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중요한 이해당사자로서 청소년들과는 매우 다른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 또한 현직교사들의 대부분은 권위적인 학교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현재 학교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 인권과 관련한 논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친인권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생지도의 일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 청소년의 인권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자료인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그 조사가 법적인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과제가 종료하는 시점에서 별도의 다년과제로 설정되지 않으면 청소년의 인권실태를 보여주는 전국단위의 신뢰할만한 조사는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청소년의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 사회의 청소년 인권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 인권실태 파악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조사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정기적으로 청소년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다면, 조사의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속적 시행에 필요한 여건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확률표집의 방법을 통해 추출한 표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와 관련하여서는 거의 유일하게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전국 규모의 조사이다. 따라서 이 조사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학계는 물론 정부에도 보급하여, 청소년 인권과 관련하여 보다 활발한 학술적인 논의는 물론 정책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참 고 문 헌

- 김영신 (2010). **친인권적 교실 문화가 청소년의 인권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지 · 김희진 · 김진숙 · 김진호 · 안재희 · 이경자 (2008).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 수준 연구 III : 청소년 인권실태의 국제비교** (연구보고 08-R09).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자영 (2011). 청소년 인권의식의 형성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법교육연구**, 6(2), 57-83.
- 류지현 · 허창영 (2008). 대학생의 인권의식에 대한 요인분석 및 인권태도의 인식수준. **민주주의와 인권**, 8(1), 175-210
- 모상현 · 김희진 (2009).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V : 생존권·보호권 인권실태조사** (연구보고 09-R1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모상현 · 김영지 · 김영인 · 이민희 · 황옥경 (2010).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 V : 발달권 · 참여권 기본보고서** (연구보고 10-R1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재숙 (2010). 학교 청소년의 인권보장,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2(1), 35-59.
- 배경내 (2006). 학생 인권의 현주소와 과제. **학생인권 관련 및 전문가와 함께 하는 학생인권증진 인권교육 토론태담 자료집**. 3-22.
- 법제처. **교육기본법**. 법제처 웹사이트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5%90%EC%9C%A1%EA%B8%B0%EB%B3%B8%EB%B2%95#liBgcolor0>에서 2013년 10월 4일 인출.
- 법제처. **국가인권위원회법**. 법제처 웹사이트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5%90%EC%9C%A1%EA%B8%B0%EB%B3%B8%EB%B2%95#liBgcolor0>에서 2013년 10월 4일 인출.
- 이봉철 (1991). 인권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권. **한국청소년연구**, 2(4), 5-29.

- 이승미 (1999). 인권의식 발달경향에 관한 연구 : 사형, 고문, 장애인 처우에 관한 추론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6(2), 103-120
- 이재연 · 황옥경 · 김효진 (2009). 아동과 권리. **아동학회지**, 30(6), 1-13.
- 이종원 · 장근영 · 김형주 (2007).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 II : 청소년 인권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보고 07-R0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희진 · 김현신 (20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 (연구보고 11-R1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희진 · 김현신 (201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I** (연구보고 12-R1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준교 (2002). 학생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과 학교생활만족: 학생인권선언을 중심으로. **아동권리연구**, 6(1), 89-108.
- 최윤진 (2000). 아동의 권리와 청소년의 권리. **청소년학연구**, 7(2), 277-300.
- 최창욱 · 박영균 · 김진호 · 임성택 · 전성민 (2006). **국제기준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 연구I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연구보고 06-R05).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Bronfenbrenner, U. (1976).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Newcomb, T. M. (1943). *Personality and social change*. New York: Dryden.
- Michener, H. A., & DeLamater, J. D. (1999). *Social psychology*. Orlando, FL: Harcourt Brace & Company.
- Schuman, H. (1995). Attitudes, beliefs, and behavior. In K. S. Cook., G. A. Fine., & J. S. House. (Eds.),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social psychology* (68-89). Boston: Allyn and Baco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kinds of attitudes high school students have regarding the human rights issues for youths, and how they perceive the human rights situations which they face with, and to find out the factors which influence those attitudes and perception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come from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Children's and Youth's Rights」 2013, and the responses from high school students were selected.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the experiences related to human(student) rights were treated as major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attitudes and perceptions regarding youths' rights as dependent variables. The major findings regarding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ttitudes on rights were gender, school achievements, socioeconomic backgrounds, and parental educational achievements among personal factors, the degree to which adolescents think they are respected in deciding family issues, participation in school affairs, the degree in supporting youths for participating in youth activities among environmental factors, and the experiences of receiving inspection of their belongings and participating in social issues. With respect to the perception on student rights situations, school achievements, socioeconomic backgrounds, the degree to which adolescents think they are respected in deciding family issues, participation in school affairs, the experiences of their personal lives revealed at school, the exercise of participatory rights, and the experiences of being physically punished and discriminated were the significant predictors.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ortant issues in researching adolescents rights and the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m were discussed.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Ⅲ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청소년의 참여권 인식수준 결정요인

▶ 책임연구원 : 김신영(한양사이버대학교·교수)



##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의 청소년 참여권에 대한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밝혀내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권기관 및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는 집단에 관계없이 응답자들의 참여권 인식 수준에 강한 정적 효과가 나타났으며, '성별' 역시 학력과 무관하게 여자 응답자들의 참여권 인식 수준이 높았다.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가정, 학교, 한국사회의 전반적 인권수준 역시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정적 효과를 보였다. 개별 독립변수들의 효과는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나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생활 만족도'나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중학생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효과를 보였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나 '인권교육 횟수', 그리고 '사회문제 참여' 등은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중학생 집단에서는 최적모형에서 제외되었다. 반면 중학생 집단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인 '차별 경험', '학교에서 학생 참여', 그리고 '어머니 학력' 등의 변수는 고등학생 집단의 최적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최적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은 '학교생활 만족', '인권기관 및 제도 인지', '남자더미', '의사 결정시 부모님의 인권 존중', '주관적 인권수준', '학업성적', '부모님으로부터 욕설이나 체벌' 등이었다.

연구결과를 근거로 한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권기관 및 제도에 대한 인지는 모든 집단에서 청소년의 참여권 인식수준에 강한 정적 효과가 나타나므로, 청소년의 참여권 신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인권관련 기관 및 제도에 대한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모두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의 참여권 인식 수준이 낮으므로 남녀의 특성에 알맞은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정, 학교, 그리고 전반적 한국사회의 인권수준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들의 참여권 인식수준과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개인의 인권에 대한 사고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가정이나 학교에서 청소년 인권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진다면 청소년 자신의 인권의식 또한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연구 요약

###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청소년 참여권에 대한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함.
- 독립변수는 응답자의 환경을 층위별로 구분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수, 가정관련 변수, 학교관련 변수, 그리고 인권관련 변수들로 구분하였음.

### 2. 연구방법

- 2013 한국청소년인권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계량분석을 시도함.
- 단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독립변수군(群)별 효과의 차이를 동시에 보고자 함.

### 3. 주요결과

- ‘인권기관 및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는 집단에 관계없이 응답자들의 참여권 인식 수준에 강한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음.
- ‘성별’ 역시 학력과 무관하게 여자 응답자들의 참여권 인식 수준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음.
-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가정, 학교, 한국사회의 전반적 인권수준 역시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생활 만족도’나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중학생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나 ‘인권교육 횟수’, 그리고 ‘사회문제 참여’ 등은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중학생 집단에서는 최적모형에서 제외되었음.

- 중학생 집단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인 ‘차별 경험’, ‘학교에서 학생 참여’, 그리고 ‘어머니 학력’ 등의 변수는 고등학생 집단의 최적 모형에서 제외되었음.
-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최적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은 ‘학교생활 만족’, ‘인권기관 및 제도 인지’, ‘남자더미’, ‘의사 결정시 부모님의 인권 존중’, ‘주관적 인권수준’, ‘학업성적’, ‘부모님으로부터 욕설이나 체벌’ 등으로 나타났음.

#### 4. 정책제언

- 인권기관 및 제도에 대한 인지는 모든 집단에서 청소년의 참여권 인식수준에 강한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청소년의 참여권 신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인권관련 기관 및 제도에 대한 내용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모두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의 참여권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청소년의 참여권 신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개입의 성별로 차별화 되어야 함을 암시하는 부분임. 남녀의 특성에 알맞은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됨.
- 개인의 인권에 대한 사고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청소년 인권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소년 스스로의 인권의식 또한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목 차

I. 서 론 .....	1
II. 이론적 배경 .....	5
1. 아동·청소년 참여권 개념 .....	7
2. 선행연구 검토 .....	10
III. 분석개요 .....	11
1. 연구문제의 설정 .....	13
2. 분석자료 .....	14
3. 측정도구 .....	14
4. 분석방법 .....	16
IV. 분석결과 .....	19
1. 집단별 청소년 참여권 인식 수준 비교 .....	21
2. 참여권 인식 수준 영향요인 분석 .....	24
V. 소결 및 함의 .....	41
참 고 문 헌 .....	45

# 표 목차

〈표 II-1〉 한국 아동·청소년 참여권 측정지표 .....	8
〈표 III-1〉 주요변수 기술통계 .....	17
〈표 IV-1〉 전체집단(중고등학교) 분석결과 .....	28
〈표 IV-2〉 참여권 인식수준 영향요인 중다회귀분석 결과(고등학생) .....	32
〈표 IV-3〉 참여권 인식수준 영향요인 중다회귀분석 결과(중학생) .....	36

## 그림 목차

【그림 Ⅲ-1】 연구모형 .....	14
【그림 Ⅳ-1】 청소년 참여권 인식수준 중학생 집단 비교 .....	21
【그림 Ⅳ-2】 청소년 참여권 인식수준 고등학생 집단 비교 .....	22
【그림 Ⅳ-3】 청소년 참여권 인식수준 집단비교 .....	23



# 제 1 장



# 서 론



# 1. 서론

이 연구는 청소년참여권에 대한 계량적 연구이다. 연구의 주제는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의 청소년 참여권에 대한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밝혀내는 것이며 따라서 연구의 성격은 탐색적이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2013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이다. 2006년 이후 청소년 참여권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김영지·김희진·김진숙·김진호·안재희·이경자, 2008; 모상현·김희진, 2009; 모상현·천정웅·신승배·이중섭, 2009; 모상현·김영지·김영인·이민희·황옥경, 2010; 임희진·김현신, 2011; 임희진·김현신, 2012). 기간 연구들은 청소년의 참여권에 대한 개념정의 및 국제비교연구와 청소년 참여권의 실태 파악을 위한 지표체계 구축 연구 등에 집중되어 왔으며 수차례의 전국적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조사 자료가 실태파악 이상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이 연구는 전국규모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 참여권의 인식 수준 및 집단별 차이,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2006년 이후 지속되어온 청소년 인권 관련 연구는 이제 8년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수많은 조사 자료들이 축적된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과거 정책연구 및 해외사례에 대한 소개에서 한 단계 발전한 계량적 연구일 것으로 생각하며 이 연구는 그러한 작업의 시작이 될 것이다.



## 제 2 장

---

# 이론적 배경

1. 아동·청소년 참여권 개괄
2. 선행연구 검토



## II. 이론적 배경

### 1. 아동·청소년 참여권 개괄

1989년 UN 총회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네 가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국제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한국의 경우 1991년 비준을 통해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sup>1)</sup>. 비준과 동시에 협약 비준국으로서 의무와 책임이 발생하였고 이에 맞추어 아동·청소년의 인권환경 기반 조성 및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네 가지 권리 가운데 참여권을 주제로 하고 있다. '국제협약'이 밝히고 있는 참여권(participation right)은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하여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여권이 다른 영역의 권리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바로 그것의 적극적 성격이다.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참여(participation)라고 함은 공적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을 말한다. 물론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연령의 제약으로 인해 가장 핵심적인 참여의 형태인 투표행위에는 법률적 제약이 따르지만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의 참여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분명 적극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원론적으로 아동·청소년 참여권의 핵심적 내용은 아동 및 청소년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 및 이슈들에 대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성인집단은 아동 청소년들의 이러한 의사표현에 대하여 최대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이 갖는 의미는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서의 수동적인 가치를 뛰어 넘는다. 아동·청소년의 참여는 자신의

1) 민법상의 부모 접근권 등 국내법과 모순되는 3개 조항은 제외되었으며 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준법적 명문으로는 청소년 헌장이 있다.

삶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행동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의 독립된 구성원으로서 합리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덕목으로서 궁극적으로 사회변동의 주체, 더 나아가 사회발전의 자원으로 기능하게 된다. 또한 발달적 차원에서 볼 때 아동·청소년의 참여는 사회구조나 제도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위치 등에 대한 정체감을 갖는데 도움을 주며 사회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사회성,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정치사회적 정체성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참여권에 대한 위와 같은 일반론적이고 원칙론적 진술은 아동·청소년의 발달기적 특수성과 이를 둘러싼 개별 사회의 관습적 또는 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낳는다. 당장 연령기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아동 및 청소년 시기는 주장, 가치관, 세계관 등을 정립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의 의사 및 주장을 어느 정도 까지 수용 또는 존중해야 하는가에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sup>2)</sup>. 또한 한국의 경우 입시환경의 비인간성, 보수적인 유교전통에 따른 권위적 연령질서 등으로 인해 아동 및 청소년의 참여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06년 이후 청소년의 참여권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아래의 표는 오랜 연구를 통해 완성된 청소년 참여권 측정 지표체계이다.

표 II-1 한국 아동·청소년 참여권 측정지표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항목
자기결정권 (=청소년 의견존중)과 사생활 보호	종교결정권	청소년의 종교자유에 대한 부모의 존중도
		종교재단별 설립학교 수 및 재학생의 비율
		종교대체과목 개설 및 자유선택 허용비율
	가정사에 대한 결정권	가정의 대소사 결정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존중 정도
		부모의 이혼시 청소년의 부모선택권이 반영되는 사례 비율
		부모의 이혼시 면접권 확보비율
	교육 및 진로 결정권	상급학교 선택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존중 정도
		진로선택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존중 정도
	문화·여가 활동 결정권	문화 및 여가활동 선택에 대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정도
	사생활에 대한 결정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2) 원론적인 차원에서 청소년 인권에 대한 의견불일치의 대표적인 사례는 ‘보호’와 ‘자율’간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간략하게 대비하자면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은 청소년의 미성숙함을 전제로 하여 적절한 수준의 개입을 주장하는 반면, ‘자율’을 강조하는 입장은 청소년들의 자기결정력과 스스로의 관점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다(박병금·유은선, 2011, p.93)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항목	
표현의 자유	사적취향의 표현	사생활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권리	
		두발 및 복장 자율화하는 학교의 비율 부모의 청소년의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규제의 정도	
	학교에서의 의견 표현	교지 및 학교신문 발행하는 학교의 비율 교내 징계 시 의사 소명권이 있는 학교의 비율	
		학생으로서 의견 표명정도 대중매체를 통한 표현활동 인터넷 이용 표현 활동	
	청소년 발언권 존중정도	청소년 의견에 대한 사회의 인식 교내 자치회가 있는 학교의 비율 학생자치회에 참여한 학생의 비율	
집회·결사의 자유	학교에서의 집회·결사	청소년 관련단체 가입 및 단체활동에 대한 학교 규제정도	
	학교 밖에서의 집회·결사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행동 경험 집회·결사의 자유보장정도	
		청소년 도서 발행비율 청소년 1인당 도서대출 현황	
정보접근권 및 정보참여	도서에 대한 접근	청소년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 청소년 가구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한 비율 일주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인터넷에 대한 접근	청소년의 법적 권리안내정도 청소년 친화적 정보제공 정도	
	알권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부모나 학교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제재 정도	
		청(소)년 실업률 문화적 활동 참여현황 청소년 정책참여 동아리 참여율 청소년 정책사업 결정과정 참여정도	
사회참여 및 참정권	사회참여	학교대표 피선출권을 제한하는 학교비율 교착 제·개정 학생참여허용 학교 비율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참여 보장하는 학교비율 교육활동 결정과정 참여정도	
		학교에서의 참여	청소년의 선거참가율 선거연령에 대한 인식/선거 참여의향
			참정권

한국 아동·청소년 참여권 측정 지표는 크게 1) 자기생활권과 사생활 보호, 2) 표현의 자유, 3) 집회 및 결사의 자유, 4) 정보 접근권 및 정보 참여, 5) 사회참여 및 참정권, 그리고 6) 참여 관련 인식 및 태도 등 6개의 관심영역과 각 영역별 세부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 2. 선행연구 검토

청소년 참여권에 대한 조사연구는 크게 해당시기 한국 청소년들의 참여권 실태를 파악하고 집단별 차이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와(문성호·성정숙, 2000; 우원미, 2010; 이재연·강성희, 1997) 청소년 참여권과 심리적 상태와의 관계에 주목하는 연구로(문용우, 2001; 이승미, 2000)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대부분의 청소년 참여권 실태조사 연구들은 한국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의 참여권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임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청소년 참여권과 더불어 논의되는 대포적인 심리상태 변수로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참여권과 함께 논의되는 이유는 자아존중감이 자아에 대한 평가적인 의미를 갖는다는데 있다. 즉 개인이 삶의 모습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신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에 상당 부분 달려 있으며 따라서 자신과 관련이 있는 영역이나 이슈에 대한 참여와 같은 적극적 행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이수연·문용우, 2002: 67). 결국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성장은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의 결정능력의 향상에 직접적 영향을 받으며 이것을 결국 자신과 관계된 이슈들에 대한 적극적 참여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여러 가지 법적 또는 제도적 환경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제 3 장

---

# 분석개요

1. 연구문제의 설정
2. 분석자료
3. 측정도구
4.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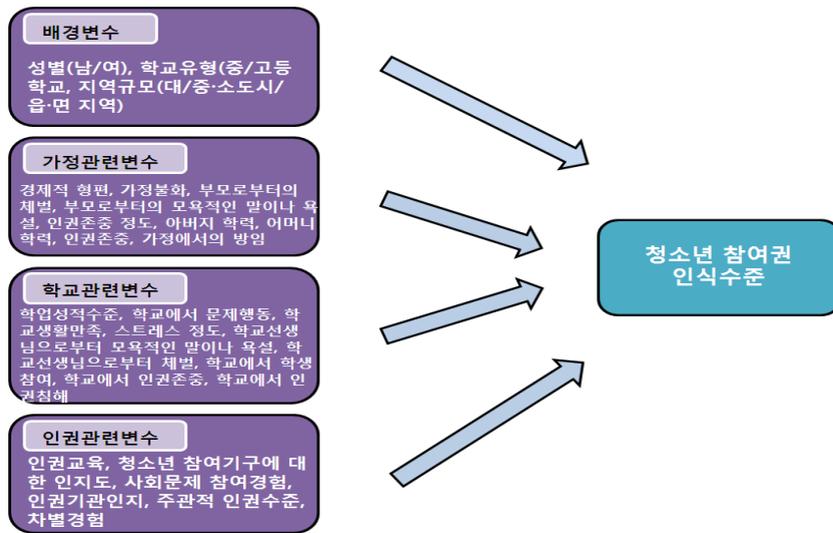
### Ⅲ. 분석개요

이 연구는 청소년<sup>3)</sup>의 참여권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청소년 인권 관련 연구들이 대부분 정책 또는 제도 연구에 집중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집한 전국 단위 조사 자료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1. 연구문제의 설정

이 연구에서 주요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집단별로 종속변수, 즉 응답자들의 참여권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무엇인가?, 둘째, 독립변수의 구분에 따라 어느 범주의 변수들이(예컨대, 배경변수, 가정관련 변수, 학교관련 변수, 그리고 인권관련 변수 등) 모형의 설명력을 향상 시키는가? 셋째,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에서 개별 독립변수의 효과들은 달라지는가? 혹은 일관되게 나타나는가? 넷째, 한국 청소년들의 참여권 인식 정도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등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이 연구는 탐색적 성격을 갖는다. 다시 말하자면, 이 연구는 연구자가 사전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보다는 어떤 변수들이 유의하게 나타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사후적으로(post-hoc) 그것의 의미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탐색적 연구가 가장 바람직한 방식의 연구는 아닐 수 있으나 청소년 참여권에 대한 사전 분석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참여권 인식 수준에 대한 개괄적 이해, 그리고 그것과 유의한 관계를 맺는 변수들의 파악은 이후 후속 연구를 위한 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3)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중고등학생 청소년 집단이며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아닌 청소년으로 용어를 제한하고자 한다.



【그림 Ⅲ-1】 연구모형

## 2. 분석자료

한편,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중·고등학생으로 제한한다. 원 자료는 초등학생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초등학생의 경우 인권의 개념이나 실태, 그리고 차별 경험 등 중요한 설문내용에 대하여 애초에 이해가 부족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중·고등학생 집단을 크게 세 집단으로(중학생 vs 고등학생 vs 중고등학생 또는 전체)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 3. 측정도구

### 1) 독립변수

이 연구에 활용될 독립변수에 대하여 개괄하자면 독립변수는 크게 네 개의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범주는 배경변수 집단이며 응답자의 '거주지역'(대도시 vs. 중소도시 vs. 읍면지역), '성별', 그리고 '가족구성'(양부모 가정 vs 한부모 가정 vs.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범주는 응답자의 가정 관련 변수집단이며 ‘가정의 경제적 형편’, ‘가정에서의 스트레스 정도’, ‘체벌자로부터의 체벌이나 욕설’<sup>4)</sup>, ‘가정에서의 인권존중 정도’, ‘부모학력’, ‘의사결정시 부모님의 본인 의견 존중 정도’<sup>5)</sup>, 그리고 ‘가정에서의 방임 정도’<sup>6)</sup>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범주는 응답자의 학교 관련 변수집단이며 ‘학업성적’, ‘학교에서 문제행동’<sup>7)</sup>, ‘학교생활 만족’<sup>8)</sup>, ‘학업스트레스’, ‘교사로부터 체벌이나 욕설’<sup>9)</sup>, ‘학교에서 인권침해 경험’<sup>10)</sup>,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참여 정도<sup>11)</sup>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범주는 인권관련 변수 집단이며 ‘인권교육 참여 정도’, ‘청소년 참여 기구’<sup>12)</sup>에 대한 인지도, ‘사회문제 참여 경험’<sup>13)</sup>, ‘인권기관 또는 제도’<sup>14)</sup> 인지정도, ‘주관적 인권수준(가정, 학교, 사회 등)’, 그리고 ‘차별경험’<sup>15)</sup> 등이다.

- 4) 최근 1년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신체적 별(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 5)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진학할 상급학교를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부모님(보호자)은 공부시간이나 방법(학원 또는 학습지 선택 등)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등 네 문항을 합산하여 재구성하였다(Cronbach alpha = .872)
- 6) ‘돌봐주는 사람 없이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본 적이 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지내거나 불결한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모른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모른다’ 등 다섯 문항을 합산하여 재구성하였다(Cronbach alpha = .815)
- 7) 최근 1년 동안 ‘지각’, ‘무단결석(보호자나 선생님께 알리지 않고 학교에 가지 않은 경우)’, ‘일부러 수업에 빠짐’, ‘수업시간에 엎드려 잠’, 그리고 ‘숙제를 하지 않음’ 등을 합산하여 재구성하였다(Cronbach alpha = .772)
- 8) ‘나는 학교에서 쉽게 친구를 사귄다’,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한다’, 그리고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등을 합산하여 재구성하였다(Cronbach alpha = .887)
- 9) 최근 1년 동안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별(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 10)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용모(머리 모양·길이·염색 또는 화장)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정해진 규정에 따르지 않고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등을 합산하여 재구성하였다(Cronbach alpha = .771).
- 11) ‘아침 보충수업(0교시 수업), 야간자율학습, 방학 보충수업 등 추가학습은 학생이 자기 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를 합산하여 재구성하였다.
- 12)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을 말한다.
- 13) ‘사회문제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등을 합산하여 재구성하였다(Cronbach alpha = .712)
- 14) ‘유엔(UN)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말한다.
- 15)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 등을 합산하여 재구성하였다. 차별경험의 경우 앞선 일곱 개의 문항들이 하나의 요인을 구성한다기 보다는 개인의 각 유형의 차별경험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합산하였으며 따라서 신뢰도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2)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청소년 참여권 인식수준은 조사문항 가운데 세 개의 문항을 합산하여 구성한 것이다. 세 개의 문항은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학생회 등)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등이며 이 문항들은 액면타당도 측면에서 청소년의 참여인식을 다루고 있는 문항으로 충분히 볼 수 있으며 신뢰도 계수 또한 .693으로 문항의 수를<sup>16)</sup> 고려할 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4. 분석방법

이 연구에 활용될 분석기법은 중다회귀분석이며 집단별로 다섯 개의 모형이 추정된다. 다섯 개의 모형은 배경변수모형, 배경변수 + 가정관련 변수 모형, 배경변수 + 가정관련 변수 + 학교관련 변수 모형, 전체모형 또는 확장모형(배경변수 + 가정관련 변수 + 학교 관련 변수 + 인권 관련 변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진분석선택 기법을 활용한 최적 모형 등이다. 따라서 최초 네 개의 모형은 각 집단에서 동일하게 추정되지만 마지막 최적모형은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분석에 활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descriptive) 통계치는 <표 II-2>와 같다.

16) 일반적으로 Cronbach-alpha 값은 문항간(inter-items) 상관과 일정 무관하게 문항의 수가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문항간 상관이 높을지라도 문항의 수가 적을 경우 Cronbach-alpha 값은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III -1 주요변수 기술통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체(N)
배경변수						
성별	남	52.5		52.5		3513
	여	47.5		47.5		3180
학교유형	중학교	49.0		49.0		3281
	고등학교	51.0		51.0		3411
지역규모	대도시	41.6		41.6		2784
	중소도시	45.2		45.2		3027
	읍면지역	13.2		13.2		881
		최소값	최대값	M	SD	전체(N)
가정변수						
경제적 형편		1.00	3.00	1.84	.76	6681
가정불화		1.00	4.00	1.74	.84	6682
부모로부터 체벌		1.00	5.00	1.37	.67	6671
부모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1.00	5.00	1.65	1.03	6677
인권존중정도		1.00	4.00	3.20	.69	6687
아버지학력		1.00	7.00	5.05	1.20	5430
어머니학력		1.00	7.00	4.79	1.11	5431
인권존중		4.00	16.00	12.19	2.41	6678
가정에서의 방임		5.00	25.00	6.66	2.09	6671
학교변수						
학업성적수준		1.00	3.00	2.09	.77	6683
학교에서 문제행동		5.00	20.00	14.35	2.70	6656
학교생활만족		5.00	20.00	14.35	2.46	6671
스트레스정도		1.00	4.00	3.02	.83	6678
학교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1.00	5.00	1.63	1.06	6664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체벌		1.00	5.00	1.63	1.03	6667
학교에서 학생참여		2.00	8.00	4.56	1.57	6675
학교에서 인권존중		1.00	4.00	2.84	.70	6686
학교에서 인권침해		3.00	15.00	5.41	2.64	6678
인권변수						
인권교육		1.00	9.00	2.62	.98	3167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3.00	12.00	8.82	1.84	6672
사회문제 참여경험		3.00	12.00	4.90	1.93	6675
인권기관인지		3.00	9.00	5.43	1.63	6680
주관적 인권수준		4.00	16.00	11.63	2.20	6682
차별경험		6.00	30.00	8.39	3.00	6657
종속변수						
참여권인식점수		3.00	12.00	8.82	1.84	6672



## 제 4 장

---

#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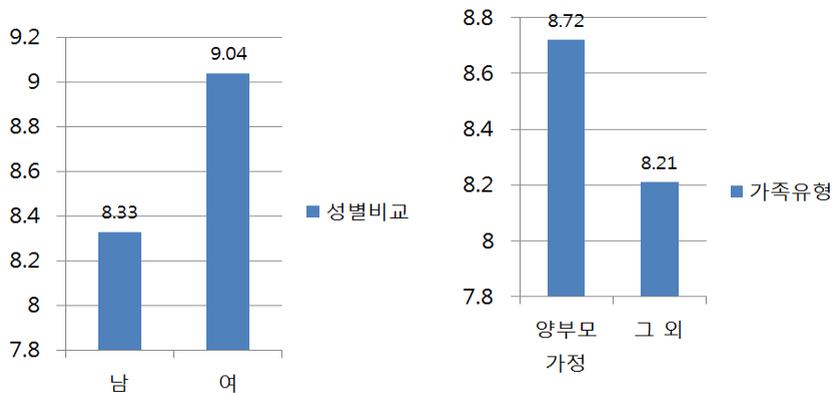
1. 집단별 청소년 참여권 인식 수준 비교
2. 참여권 인식 수준 영향요인 분석



## IV. 분석결과

### 1. 집단별 청소년 참여권 인식 수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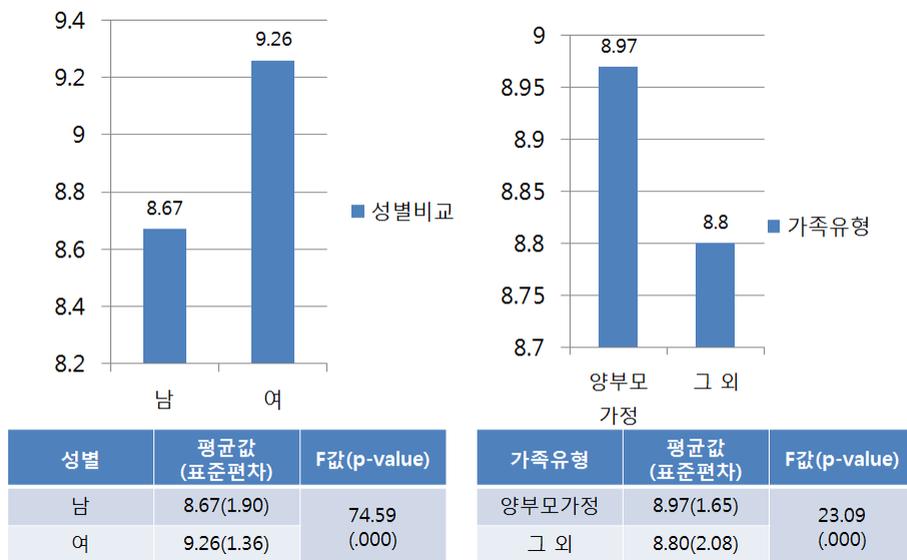
모형 검정 및 유의 변수 탐색 이전 작업 일환으로 배경 변수의 범주별 청소년 참여권 인식 수준을 비교하였다. 먼저 중학생 집단의 경우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여자 청소년들의 참여권 인식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남자 청소년:  $M = 8.33$ ,  $SD = 2.13$  VS. 여자 청소년:  $M = 9.04$ ,  $SD = 1.62$ ,  $F = 141.09$ ,  $p = .000$ ). 가족 유형 별로 살펴 본 결과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의 그 외 가정의 청소년들에 비해 참여권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경우 역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양부모 가정 청소년:  $M = 8.72$ ,  $SD = 1.93$  VS. 그 외 가정 청소년:  $M = 8.21$ ,  $SD = 2.20$ ,  $F = 14.14$ ,  $p = .000$ ). 반면 거주 지역 별로는 참여권 인식 수준의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 = 1.06$ ,  $p = .345$ ).



성별	평균값 (표준편차)	F값(p-value)	가족유형	평균값 (표준편차)	F값(p-value)
남	8.33(2.13)	141.09(.000)	양부모가정	8.72	14.14(.000)
여	9.04(1.62)		그 외	8.21	

【그림 IV-1】 청소년 참여권 인식수준 중학생 집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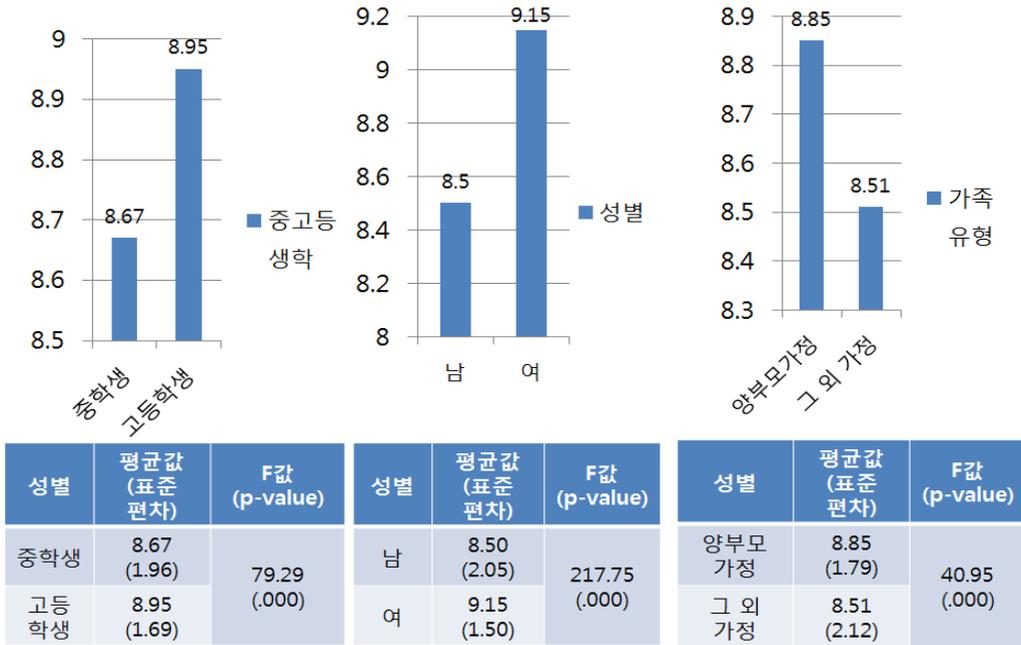
다음으로 고등학생 집단의 경우 역시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여자 청소년들의 참여권 인식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남자 청소년:  $M = 8.67$ ,  $SD = 1.90$  VS. 여자 청소년:  $M = 9.26$ ,  $SD = 1.36$ ,  $F = 74.59$ ,  $p = .000$ ). 가족 유형 별로 살펴 본 결과 역시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의 그 외 가정의 청소년들에 비해 참여권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경우 역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양부모 가정 청소년:  $M = 8.97$ ,  $SD = 1.65$  VS. 그 외 가정 청소년:  $M = 8.80$ ,  $SD = 2.08$ ,  $F = 23.09$ ,  $p = .000$ ). 반면 거주 지역별로는 참여권 인식 수준의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 = 2.41$ ,  $p = .090$ ).



【그림 IV-2】 청소년 참여권 인식수준 고등학생 집단 비교

중고등학생 전체를 살펴 본 결과, 먼저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 청소년들의 참여권 인식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중학생:  $M = 8.67$ ,  $SD = 1.96$  VS. 여자 청소년:  $M = 8.95$ ,  $SD = 1.69$ ,  $F = 79.29$ ,  $p = .000$ ).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여자 청소년들의 참여권 인식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남자 청소년:  $M = 8.50$ ,  $SD = 2.05$  VS. 여자 청소년:  $M = 9.15$ ,  $SD = 1.50$ ,  $F = 217.75$ ,  $p = .000$ ). 가족 유형 별로 살펴 본 결과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의 그 외 가정의 청소년들에 비해 참여권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경우 역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양부모 가정 청소년:

$M = 8.85, SD = 1.79$  VS. 그 외 가정 청소년:  $M = 8.51, SD = 2.12, F = 40.95, p = .000$ .  
반면 거주 지역별로는 참여권 인식 수준의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 = 1.68, p = .185$ ).



【그림 IV-3】 청소년 참여권 인식수준 집단비교

모든 집단에서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들의 참여권 인식 수준이, 양부모 가정 청소년이 비양부모 청소년 가정 청소년에 비해 참여권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 2. 참여권 인식 수준 영향요인 분석

### 1) 전체 집단(중·고등학생) 분석 결과

#### (1) 모형 1

먼저 배경변수만을 투입한 모형(모형 1)을 살펴보면, 모형 자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F = 57.04, p = .000$ ) 설명력은 높지 않았다( $\Delta R^2 = .033$ ). ‘남자더미’와( $B = -.638, t = -14.20, p = .000$ ) ‘양부모더미’( $B = .296, t = 4.14, p = .000$ ) 변수들이 청소년의 참여권 인식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이, 비양부모 가정 청소년에 비해 양부모 가정 청소년이 참여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모형 2

다음으로 모형 1에 가정 관련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모형 2)을 살펴보면, 모형 자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 = 35.69, p = .000$ ) 설명력 또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Delta R^2 = .082$ ). 변수별로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더미’는 계속해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B = -.578, t = -11.81, p = .000$ ), ‘양부모더미’는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7)</sup> 가정 관련 변수들 가운데 유의한 것들은 ‘가정불화로 인한 스트레스’( $B = .077, t = 2.31, p = .021$ ), ‘부모님으로부터 욕설’( $B = .151, t = 4.98, p = .000$ ), ‘가정에서의 인권존중’( $B = .268, t = 5.99, p = .000$ ), ‘아버지 학력’( $B = .103, t = 3.90, p = .000$ ), ‘의사 결정시 부모님의 인권 존중’( $B = .116, t = 9.42, p = .000$ ), 그리고 ‘가정에서의 방임 정도’( $B = -.048, t = -3.71, p = .000$ ) 등이다. 즉 가정불화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님으로부터 욕설을 자주 들을수록, 가정에서의 인권 존중 정도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사결정시 부모님의 응답자의 의견을 존중할수록, 그리고 가정에서의 방임정도가 낮을수록 응답자의 참여권 인식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 이 연구의 경우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검정력(statistical power) 보다는 1종 오류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p$ 값이 .05와 .10사이에 존재하는 추정치들은 유의하지 않는 결과로 간주하였다.

(3) 모형 3

다음으로 모형 2에 학교 관련 변수들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모형 3)을 살펴보면, 모형 자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 = 33.46, p = .000$ ) 설명력 또한 모형 2에 비해 약 50% 증가하였다( $\Delta R^2 = .120$ ). 변수별로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더미’는 계속해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B = -.546, t = -10.745, p = .000$ ),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새롭게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다( $B = -.064, t = -2.77, p = .006$ ). 즉 여자 청소년일수록 그리고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할수록 참여권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관련 변수들 가운데에서는 ‘가정불화로 인한 스트레스’( $B = .072, t = 2.18, p = .029$ ), ‘부모님으로부터 욕설’( $B = .151, t = 5.04, p = .000$ ), ‘가정에서의 인권존중’( $B = .237, t = 5.38, p = .000$ ), ‘아버지 학력’( $B = .063, t = 2.42, p = .015$ ), ‘의사 결정시 부모님의 인권 존중’( $B = .082, t = 6.60, p = .000$ ) 등이 계속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가정에서의 방임 정도’는 유의성을 상실하였으며 새롭게 ‘어머니 학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B = -.067, t = -2.41, p = .016$ ). 즉 가정불화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님으로부터 욕설을 자주 들을수록, 가정에서의 인권 존중 정도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의사결정시 부모님의 응답자의 의견을 존중할수록 응답자의 참여권 인식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관련 변수들을 살펴보면, ‘학업성적수준’( $B = .122, t = 4.89, p = .000$ ), ‘학교에서의 문제행동’( $B = .030, t = 2.97, p = .003$ ), ‘학교생활 만족정도’( $B = .088, t = 7.97, p = .000$ ),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B = .182, t = 6.08, p = .000$ ),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 참여 정도’( $B = .082, t = 5.21, p = .000$ )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학교에서의 문제행동 정도가 낮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에서 학생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참여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모형 4

다음으로 모형 3에 인권 관련 변수들을 추가로 투입한 전체모형(모형 4, Full Model)을 살펴보면, 모형 자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 = 19.53, p = .000$ ) 설명력 또한 모형 3에 비해 약

30% 증가하였다( $\Delta R^2 = .174$ ). 변수별로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더미’는 계속해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 = -.415, t = -5.94, p = .000$ ), ‘가정의 경제적 형편’ 역시 계속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다( $B = -.144, t = -4.56, p = .000$ ). 즉 여자 청소년일수록 그리고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할수록 참여권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관련 변수들 가운데에서는 ‘가정불화로 인한 스트레스’( $B = .094, t = 2.08, p = .037$ ), ‘부모님으로부터 욕설’( $B = .112, t = 2.77, p = .006$ ), ‘아버지 학력’( $B = .069, t = 1.98, p = .048$ ), ‘어머니 학력’( $B = -.074, t = -2.00, p = .045$ ), ‘의사 결정시 부모님의 인권 존중’( $B = .085, t = 4.93, p = .000$ ) 등이 계속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가정에서의 인권존중 정도는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다. 즉 가정불화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님으로부터 욕설을 자주 들을수록,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의사결정시 부모님의 응답자의 의견을 존중할수록 응답자의 참여권 인식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관련 변수들을 살펴보면, ‘학업성적수준’( $B = .109, t = 3.22, p = .001$ ), ‘학교생활 만족정도’( $B = .073, t = 4.51, p = .000$ ),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B = .160, t = 3.82, p = .000$ ),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참여 정도’( $B = .083, t = 3.71, p = .000$ )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문제행동 정도는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다. 즉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에서 학생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참여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권관련 변수들을 살펴보면, ‘인권교육의 횟수’( $B = .097, t = 2.91, p = .004$ ), ‘사회문제 참여 경험’( $B = .038, t = 2.25, p = .024$ ), 인권기관 및 제도 인지’( $B = .129, t = 6.06, p = .000$ ), 그리고 ‘주관적 인권수준’( $B = .107, t = 4.48, p = .000$ )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참여권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권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사회문제 참여 경험이 많을수록, 인권기관 및 제도를 잘 인지하고 있을수록, 그리고 주관적인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있을수록 참여권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모형 5

마지막으로 중다회귀분석의 전진분석기법<sup>18)</sup>을 활용하여 최적모형(모형 5)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총 열 두 개의 독립변수가 포함된 모형이 최적모형으로 추정되었다. 모형은 유의하였으며 종속변수 전체 변량의 약 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 = 42.21, p = .000, \Delta R^2 = .173$ ).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은 효과의 크기순으로 ‘주관적 인권수준’( $B = .109, t = 5.65, p = .000$ ), ‘인권기관 및 제도 인지’( $B = .137, t = 6.61, p = .000$ ), ‘남자더미’( $B = -.427, t = -6.57, p = .000$ ), ‘학교생활 만족’( $B = .074, t = 4.69, p = .000$ ), ‘의사결정시 부모님의 인권존중’( $B = .083, t = 5.31, p = .000$ ), ‘가정의 경제적 형편’( $B = -.146, t = -4.93, p = .000$ ),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B = .180, t = 4.38, p = .000$ ),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B = .080, t = 3.69, p = .000$ ), ‘학업성적’( $B = .126, t = 3.90, p = .000$ ), ‘부모님으로부터 욕설’( $B = .102, t = 3.00, p = .003$ ), ‘인권교육 횟수’( $B = .098, t = 2.95, p = .003$ ), ‘사회문제 참여 경험’( $B = .044, t = 2.69, p = .007$ ) 등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은 주관적인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있을수록, 인권기관 및 제도를 잘 인지하고 있을수록, 여자일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의사결정시 부모님의 응답자의 의견을 존중할수록,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할수록,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에서 학생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부모님으로부터 욕설을 자주 들을수록, 인권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사회문제 참여 경험이 많을수록 참여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함께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회귀방정식에 포함될 독립변수를 결정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이다. 주로 독립변수의 수가 많은 회귀분석과정에 주로 사용되며, 가장 단순한 회귀모형으로부터 출발하여 가장 중요한 변수들을 골라 차례대로 모형에 포함시켜 나가는 과정을 반복하여 회귀방정식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모든 독립변수 가운데 종속변수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예를 들어, 단순상관계수의 절대값이 가장 큰)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키고 회귀선을 추정 한 후 회귀계수에 대한 유의성 검정을 실시한다. 검정의 결과가 유의하지 않으면 선택되는 독립변수는 없는 것으로 하고 절차를 중단한다. 검정결과가 유의한 경우에는 나머지 독립변수들 중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편상관계수가 가장 큰) 변수를 추가한 모형을 추정하고 회귀계수에 대한 유의성을 검정한다. 이 과정을 더 이상 중요한 변수가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반복수행하게 되며 더 이상 유의한 변수가 발견되지 않으면 직전까지의 변수가 포함된 모형이 바로 최적모형이 된다.

표 IV-1 전체집단(중고등학교) 분석결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Full Model		최적모델	
	<i>B(t)</i>	<i>p</i>	<i>B(t)</i>	<i>p</i>	<i>B(t)</i>	<i>p</i>	<i>B(t)</i>	<i>p</i>	<i>B(t)</i>	<i>p</i>
배경변수										
대도시 더미			.012 (.159)	.873	-.018 (-.243)	.808	-.023 (-.230)	.818		
남자 더미	-.638 (-14.202)	.000	-.578 (-11.814)	.000	-.546 (-10.745)	.000	-.415 (5.948)	.000	-.427 (-6.577)	.000
양부모 더미	.296 (4.144)	.000	.169 (1.799)	.072	.107 (1.157)	.247	.045 (.352)	.725		
중소도시 더미	.009 (.131)	.896	.052 (.684)	.494	-.004 (-.053)	.957	-.032 (-.321)	.749		
가정변수										
경제적 형편			-.032 (-.1356)	.175	-.064 (-2.776)	.006	-.144 (-4.565)	.000	-.146 (-4.938)	.000
가정불화			.077 (2.316)	.021	.072 (2.189)	.029	.094 (2.082)	.037		
부모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151 (4.984)	.000	.151 (5.048)	.000	.112 (2.774)	.006	.102 (3.008)	.003
인권존중정도			.268 (5.996)	.000	.237 (5.380)	.000	.050 (.665)	.506	.083 (5.312)	.000
아버지 학력			.103 (3.905)	.000	.063 (2.427)	.015	.069 (1.981)	.048		
어머니 학력			-.053 (-1.879)	.060	-.067 (-2.415)	.016	-.074 (-2.008)	.045		
인권존중			.116 (9.429)	.000	.082 (6.607)	.000	.085 (4.934)	.000		
가정에서의 방임			-.048 (-3.710)	.000	-.024 (-1.869)	0.62	-.029 (-1.633)	.103		
학교변수										
학업성적수준					.122 (4.895)	.000	.109 (3.223)	.001	.126 (3.905)	.000
학교에서 문제행동					.030 (2.975)	.003	.019 (1.404)	.160		
학교생활 만족					.088 (7.976)	.000	.073 (4.514)	.000	.074 (4.695)	.000
스트레스 정도					.182 (6.087)	.000	.160 (3.828)	.000	.180 (4.381)	.000
학교선생님으로 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054 (-1.889)	.059	-.047 (-1.195)	.232		
학교선생님으로 부터 체벌					-.006 (-.213)	.831	.047 (1.130)	.258		

	모형 1		모형 2		모형 3		Full Model		최적모델	
	B(t)	p	B(t)	p	B(t)	p	B(t)	p	B(t)	p
학교에서 학생 참여					.082 (5.218)	.000	.083 (3.712)	.000	.080 (3.692)	.000
인권변수										
인권교육							0.97 (2.910)	.004	.098 (2.951)	.003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039 (2.257)	.024		
사회문제 참여 경험							.038 (2.257)	.024	.044 (2.697)	.007
인권기관인지							.129 (6.067)	.000	.137 (6.617)	.000
주관적 인권수준							.107 (4.486)	.000	.109 (5.652)	.000
차별 경험							.021 (1.709)	.088		
<i>F(p)</i>	57,043(.000B)		35,699(.000)		33,436(.000)		19,535(.000)		42,214(.000)	
$\Delta R^2$	.033		.082		.120		.174		.173	

## 2) 고등학생 집단 분석 결과

### (1) 모형 1

먼저 배경변수만을 투입한 모형(모형 1)을 살펴보면, 모형 자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F = 27.42, p = .000$ ) 설명력은 높지 않았다( $\Delta R^2 = .030$ ). ‘남자더미’( $B = -.596, t = -10.05, p = .000$ ) 변수만이 청소년의 참여권 인식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남자 고등학생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이 참여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배경변수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 (2) 모형 2

모형 1에 가정 관련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모형 2)를 살펴보면, 모형 자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 = 19.18, p = .000$ ) 설명력 또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Delta R^2 = .078$ ). 변수별로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더미’는 계속해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 -.578, t = -9.24, p = .000$ ). 가정 관련 변수들 가운데 유의한 것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욕설’( $B = .119, t = 3.05, p = .002$ ), ‘가정에서의 인권존중’( $B = .259, t = 4.42, p = .000$ ), ‘아버지 학력’( $B = .076, t = 2.32, p = .020$ ), ‘의사 결정시 부모님의 인권 존중’( $B = .097, t = 6.11, p = .000$ ), 그리고 ‘가정에서의 방임 정도’( $B = -.069, t = -4.29, p = .000$ ) 등이다. 즉 여자 고등학생 청소년일수록, 가정불화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님으로부터 욕설을 자주 들을수록, 가정에서의 인권 존중 정도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사결정시 부모님의 응답자의 의견을 존중할수록, 그리고 가정에서의 방임정도가 낮을수록 응답자의 참여권 인식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모형 3

모형 2에 학교 관련 변수들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모형 3)을 살펴보면, 모형 자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 = 19.00, p = .000$ ) 설명력 또한 모형 2에 비해 약 50% 증가하였다( $\Delta R^2 = .120$ ). 변수별로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더미’는 계속해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 = -.564, t = -8.58, p = .000$ ), 가정 관련 변수들 가운데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형편’( $B = -.074, t = -2.49, p = .013$ ), ‘부모님으로부터 욕설’( $B = .133, t = 3.43, p = .001$ ), ‘가정에서의 인권존중’( $B = .249, t = 4.35, p = .000$ ), ‘의사 결정시 부모님의 인권 존중’( $B = .060, t = 3.76, p = .000$ ), ‘가정에서의 방임 정도’( $B = -.051, t = -3.20, p = .001$ ) 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일수록,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할수록, 부모님으로부터 욕설을 자주 들을수록, 가정에서의 인권 존중 정도가 높을수록, 의사결정시 부모님의 응답자의 의견을 존중할수록, 그리고 가정에서의 방임정도가 낮을수록 응답자의 참여권 인식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관련 변수들을 살펴보면, ‘학업성적수준’( $B = .073, t = 2.31, p = .021$ ), ‘학교에서의 문제행동’( $B = .033, t = 2.57, p = .010$ ), ‘학교생활 만족정도’( $B = .108, t = 7.45, p = .000$ ),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B = .207, t = 5.14, p = .000$ ), 그리고 ‘선생님으로부터 체벌 정도’( $B = -.084, t = -2.35, p = .019$ )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학교에서의 문제행동 정도가 낮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선생님

으로부터 체벌 정도가 높을수록 참여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모형 4

모형 3에 인권 관련 변수들을 추가로 투입한 전체모형(모형 4, full Model)을 살펴보면, 모형 자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 = 10.88, p = .000$ ) 설명력 또한 모형 3에 비해 약 30% 증가하였다( $\Delta R^2 = .176$ ). 변수별로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더미’는 계속해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 = -.382, t = -4.19, p = .000$ ), ‘가정의 경제적 형편’ 역시 계속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다( $B = -.126, t = -3.02, p = .003$ ). 즉 여자 청소년일수록 그리고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할수록 참여권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관련 변수들 가운데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욕설’( $B = .114, t = 2.23, p = .025$ ), ‘의사 결정시 부모님의 인권 존중’( $B = .076, t = 3.35, p = .001$ ), ‘가정에서의 방임’( $B = -.054, t = -2.46, p = .014$ ) 등이 계속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님으로부터 욕설을 자주 들을수록, 의사결정시 부모님의 응답자의 의견을 존중할수록, 그리고 가정에서의 방임 정도가 낮을수록 응답자의 참여권 인식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관련 변수들을 살펴보면, ‘학업성적수준’( $B = .091, t = 2.15, p = .032$ ), ‘학교생활 만족정도’( $B = .122, t = 5.71, p = .000$ ),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B = .182, t = 3.23, p = .001$ )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참여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관련 변수들을 살펴보면, ‘인권교육의 횟수’( $B = .092, t = 2.06, p = .039$ ), ‘사회문제 참여 경험’( $B = .059, t = 2.62, p = .009$ ), ‘인권기관 및 제도 인지’( $B = .108, t = 3.97, p = .000$ )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참여권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권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사회문제 참여 경험이 많을수록, 인권기관 및 제도를 잘 인지하고 있을수록 고등학생 청소년들의 참여권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모형 5

마지막으로 중다회귀분석의 전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최적모형(모형 5)을 추정하였다. 분석결

과 총 열 두 개의 독립변수가 포함된 모형이 최적모형을 추정되었다. 모형은 유의하였으며 종속변수 전체 변량의 약 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 = 23.46, p = .000, \Delta R^2 = .173$ ).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은 효과의 크기순으로 ‘학교생활 만족도’( $B = .123, t = 5.95, p = .000$ ), ‘인권기관 및 제도 인지’( $B = .117, t = 4.44, p = .000$ ), ‘남자더미’( $B = -.415, t = -5.08, p = .000$ ), ‘의사 결정시 부모님의 인권 존중’( $B = .086, t = 4.22, p = .000$ ), ‘주관적 인권수준’( $B = .081, t = 3.19, p = .001$ ),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B = .186, t = 3.39, p = .001$ ), ‘가정의 경제적 형편’( $B = -.147, t = -3.83, p = .000$ ), ‘사회문제 참여 경험’( $B = .058, t = 2.69, p = .007$ ), ‘학업성적’( $B = .105, t = 2.60, p = .009$ ), ‘가정에서의 방임 정도’( $B = -.055, t = -2.56, p = .011$ ), ‘부모님으로부터 체벌 및 욕설’( $B = .109, t = 2.44, p = .014$ ), 그리고 ‘인권교육 횟수’( $B = .087, t = 1.99, p = .046$ ) 등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은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인권기관 및 제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수록, 여자일수록, 의사 결정시 부모님이 자신들의 권리를 존중해 줄수록,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을수록, 사회문제에 참여 경험이 많을수록,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가정에서의 방임 정도가 낮을수록, 부모님으로부터 체벌이나 욕설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인권교육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참여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함께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 참여권 인식수준 영향요인 중다회귀분석 결과(고등학생)

	모형 1		모형 2		모형 3		Full Model		최적모형	
	<i>B(t)</i>	<i>p</i>	<i>B(t)</i>	<i>p</i>	<i>B(t)</i>	<i>p</i>	<i>B(t)</i>	<i>p</i>	<i>B(t)</i>	<i>p</i>
배경변수										
대도시 더미	.101 (1.126)	.260	.035 (.367)	.714	.031 (.332)	.740				
남자 더미	-.596 (-10.057)	.000	-.578 (-9.247)	.000	-.564 (-8.585)	.000	-.382 (-4.197)	.000	-.415 (-5.080)	.000
양부모 더미	.135 (1.465)	.143	.008 (.064)	.949	-.024 (-.208)	.835	-.179 (-1.059)	.290		
중소도시 더미	.143 (1.611)	.107	.091 (.969)	.332	.086 (.918)	.359	.035 (.274)	.784		
가정변수										
경제적 형편			-.041 (-1.375)	.169	-.074 (-2.495)	.013	-.126 (-3.029)	.003	-.147 (-3.837)	.000
가정불화			.073 (1.728)	.084	.056 (1.339)	.181	.118 (2.067)	.039		

	모형 1		모형 2		모형 3		Full Model		최적모델	
	<i>B(t)</i>	<i>p</i>	<i>B(t)</i>	<i>p</i>	<i>B(t)</i>	<i>p</i>	<i>B(t)</i>	<i>p</i>	<i>B(t)</i>	<i>p</i>
부모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066 (-1.034)	.301	-.013 (-.211)	.833	-.031 (-.359)	.719		
인권존중정도			.119 (3.050)	.002	.133 (3.435)	.001	.114 (2.239)	.025	.109 (2.449)	.014
아버지 학력			.259 (4.422)	.000	.249 (4.352)	.000	.181 (1.828)	.068		
어머니 학력			.076 (2.322)	.020	.051 (1.597)	.110	.021 (.483)	.629		
인권존중			-.024 (-.691)	.490	-.039 (-1.146)	.252	-.036 (-.772)	.440		
가정에서의 방임			.097 (6.112)	.000	.060 (3.760)	.000	.076 (3.353)	.001	.086 (4.226)	.000
학교변수										
학업성적수준					-.051 (-3.203)	.001	.091 (2.150)	.032	.105 (2.600)	.009
학교에서 문제행동					.033 (2.574)	.010	.015 (.839)	.401		
학교생활만족					.108 (7.453)	.000	.122 (5.713)	.000	.123 (5.953)	.000
스트레스정도					.207 (5.143)	.000	.182 (3.233)	.001	.186 (3.391)	.001
학교선생님으로 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084 (-2.351)	.019	.001 (.024)	.981		
학교선생님으로 부터 체벌					.020 (.506)	.613	-.021 (-.402)	.688		
학교에서 학생참여					.013 (1.112)	.266	.009 (.513)	.608		
인권변수										
인권교육							.092 (2.066)	.039	.087 (1.994)	.046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021 (.379)	.705		
사회문제 참여경험							.059 (2.625)	.009	.058 (2.691)	.007
인권기관인지							.108 (3.977)	.000	.117 (4.440)	.000
주관적 인권수준							.045 (1.404)	.160	.081 (3.198)	.001
차별경험							-.015 (-.902)	.367		
<i>F(p)</i>	27.429(.000b)		19.187(.000b)		19.009(.000b)		10.886(.000b)		23.469(.000M)	
$\Delta R^2$	.030		.078		.120		.176		.178	

### 3) 중학생 집단 분석결과

#### (1) 모형 1

먼저 배경변수만을 투입한 모형(모형 1)을 살펴보면, 모형 자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F = 32.30, p = .000$ ) 설명력은 높지 않았다( $\Delta R^2 = .037$ ). ‘남자더미’와( $B = -.692, t = -10.20, p = .000$ ) ‘양부모더미’( $B = .462, t = 4.23, p = .000$ ) 변수들이 청소년의 참여권 인식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남자 중학생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이, 비양부모 가정 중학생 청소년에 비해 양부모 가정 중학생 청소년이 참여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모형 2

다음으로 모형 1에 가정 관련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모형 2)를 살펴보면, 모형 자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 = 16.99, p = .000$ ) 설명력 또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Delta R^2 = .084$ ). 변수별로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더미’( $B = -.572, t = -7.33, p = .000$ )와 ‘양부모더미’( $B = .330, t = 2.21, p = .027$ )는 계속해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관련 변수들 가운데 유의한 것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욕설’( $B = .171, t = 3.61, p = .000$ ), ‘가정에서의 인권존중’( $B = .261, t = 3.76, p = .000$ ), ‘아버지 학력’( $B = .135, t = 3.08, p = .002$ ), 의사 결정시 부모님의 인권 존중’( $B = .136, t = 7.05, p = .000$ ) 등이다. 즉 여자 고등학생 청소년일수록, 양부모 가정일수록, 부모님으로부터 욕설을 자주 들을수록, 가정에서의 인권 존중 정도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사결정시 부모님의 응답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록 응답자의 참여권 인식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모형 3

다음으로 모형 2에 학교 관련 변수들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모형 3)을 살펴보면, 모형 자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 = 17.17, p = .000$ ) 설명력 또한 모형 2에 비해 약 50% 증가하였다( $\Delta R^2$

= .133). 변수별로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더미’는 계속해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 = -.516, t = -6.44, p = .000$ ), 가정 관련 변수들 가운데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욕설’( $B = .164, t = 3.52, p = .000$ ), ‘가정에서의 인권존중’( $B = .202, t = 2.94, p = .003$ ), ‘의사 결정시 부모님의 인권 존중’( $B = .098, t = 5.05, p = .000$ ) 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일수록, 부모님으로부터 욕설을 자주 들을수록, 가정에서의 인권 존중 정도가 높을수록, 의사결정시 부모님의 응답자의 의견을 존중할수록 응답자의 참여권 인식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관련 변수들을 살펴보면, ‘학업성적수준’( $B = -.292, t = -5.45, p = .000$ ), ‘학교생활 만족정도’( $B = .070, t = 4.18, p = .000$ ),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B = .118, t = 2.57, p = .010$ ),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 참여’( $B = .169, t = 6.69, p = .000$ )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참여의 수준이 높을수록 참여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모형 4

다음으로 모형 3에 인권 관련 변수들을 추가로 투입한 전체모형(모형 4, Full Model)을 살펴보면, 모형 자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 = 14.69, p = .000$ ) 설명력 또한 모형 3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다( $\Delta R^2 = .148$ ). 변수별로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더미’는 계속해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 = -.505, t = -6.34, p = .000$ ), 가정 관련 변수들 가운데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욕설’( $B = .102, t = 2.20, p = .028$ ), ‘어머니 학력’( $B = -.098, t = -2.17, p = .030$ ), ‘의사 결정시 부모님의 인권 존중’( $B = .086, t = 4.38, p = .000$ ) 등이 계속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중학생 청소년일수록, 부모님으로부터 욕설을 자주 들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의사결정시 부모님이 응답자의 의견을 존중할수록 응답자의 참여권 인식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관련 변수들을 살펴보면, ‘학업성적수준’( $B = -.245, t = -4.57, p = .000$ ), ‘학교생활 만족정도’( $B = .046, t = 2.63, p = .009$ ),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B = .101, t = 2.19, p = .028$ ),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참여’( $B = .124, t = 4.79, p = .000$ )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참여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권관련 변수들을 살펴보면, ‘인권기관 및 제도 인지’( $B = .140, t = 5.63, p = .000$ ), ‘주관적 인권수준’( $B = .119, t = 4.63, p = .000$ ), 그리고 ‘차별 경험’( $B = .046, t = 3.25, p = .001$ )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참여권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권기관 및 제도를 잘 인지하고 있을수록, 주관적 인권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중학생 청소년들의 참여권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모형 5

마지막으로 중다회귀분석의 전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최적모형(모형 5)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총 열 한 개의 독립변수가 포함된 모형이 최적모형으로 추정되었다.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종속변수 전체 변량의 약 1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 = 34.79, p = .000, \Delta R^2 = .149$ ).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은 효과의 크기순으로 ‘주관적 인권수준’( $B = .100, t = 4.90, p = .000$ ), ‘인권기관 및 제도 인지’( $B = .155, t = 6.64, p = .000$ ), ‘남자더미’( $B = -.532, t = -6.98, p = .000$ ), ‘학교에서 학생 참여’( $B = .133, t = 5.25, p = .000$ ), ‘학업성적’( $B = -.263, t = -5.22, p = .000$ ), ‘의사결정시 부모님의 인권 존중’( $B = .078, t = 4.29, p = .000$ ), ‘차별 경험’( $B = .042, t = 3.19, p = .001$ ), ‘학교생활 만족’( $B = .051, t = 2.99, p = .003$ ), ‘부모님으로부터 체벌이나 욕설 경험’( $B = .094, t = 2.42, p = .015$ ),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B = .110, t = 2.42, p = .016$ ), 그리고 ‘어머니 학력’( $B = -.075, t = -2.10, p = .035$ ) 등이다.

표 IV-3 참여권 인식수준 영향요인 중다회귀분석 결과(중학생)

	모형 1		모형 2		모형 3		Full Model		최적모형	
	$B(t)$	$p$	$B(t)$	$p$	$B(t)$	$p$	$B(t)$	$p$	$B(t)$	$p$
배경변수										
대도시 더미	-.095 (-.874)	.382	-.025 (-.195)	.846	-.047 (-.378)	.706	-.023 (-.186)	.853		
남자 더미	-.692 (-10.209)	.000	-.572 (-7.334)	.000	-.516 (-6.444)	.000	-.505 (-6.340)	.000	-.532 (-6.985)	.000
양부모 더미	.462 (4.238)	.000	.330 (2.215)	.027	.247 (1.694)	.090	.238 (1.627)	.104		
중소도시 더미	-.127 (-1.174)	.240	.006 (.051)	.959	-.045 (-.373)	.710	.020 (.169)	.866		

	모형 1		모형 2		모형 3		Full Model		최적모델	
	<i>B(t)</i>	<i>p</i>	<i>B(t)</i>	<i>p</i>	<i>B(t)</i>	<i>p</i>	<i>B(t)</i>	<i>p</i>	<i>B(t)</i>	<i>p</i>
가정변수										
경제적 형편			.008 (.216)	.829	-.030 (-.824)	.410	-.055 (-1.526)	.127		
가정불화			.068 (1.280)	.201	.083 (1.594)	.111	.033 (.633)	.526		
부모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036 (-.587)	.577	-.039 (-.652)	.514	-.055 (-.901)	.368		
인권존중정도			.171 (3.612)	.000	.164 (3.525)	.000	.102 (2.205)	.028		
아버지 학력			.261 (3.763)	.000	.202 (2.945)	.003	-.086 (-1.013)	.311	.078 (4.295)	.000
어머니 학력			.135 (3.087)	.002	.068 (1.582)	.114	.047 (1.096)	.273		
인권존중			-.068 (-0.39)	.145	-.085 (-1.868)	.062	-.098 (-2.170)	.030	-.075 (-2.109)	.035
가정에서의 방임			.136 (7.055)	.000	.098 (5.051)	.000	.086 (4.381)	.000		
학교변수										
학업성적수준					-.292 (-5.457)	.000	-.245 (-4.578)	.000	-.263 (-5.222)	.000
학교에서 문제행동					.028 (1.698)	.090	.017 (1.012)	.311		
학교생활 만족					.070 (4.189)	.000	.046 (2.630)	.009	.051 (2.999)	.003
스트레스 정도					.118 (2.570)	.010	.101 (2.194)	.028	.110 (2.422)	.016
학교선생님으로 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015 (-.336)	.737	-.038 (-.817)	.414		
학교선생님으로 부터 체벌					-.027 (-.571)	.568	.014 (.299)	.765	.094 (2.426)	.015
학교에서 학생 참여					.009 (.596)	.551	.002 (.111)	.912		

	모형 1		모형 2		모형 3		Full Model		최적모델	
	B(t)	p	B(t)	p	B(t)	p	B(t)	p	B(t)	p
인권변수										
인권교육							-.006 (-.218)	.828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015 (.277)	.782		
사회문제 참여 경험							.033 (1.599)	.110		
인권기관인지							.140 (5.636)	.000	.155 (6.649)	.000
주관적 인권수준							.119 (4.631)	.000	.100 (4.903)	.000
차별 경험							.046 (3.255)	.001	.042 (3.190)	.001
F(p)	32.209(.000b)		16.992(.000b)		17.173(.000b)		14.695(.000b)		34.790(.000)	
$\Delta R^2$	.037		.084		.133		.148		.149 <sup>a</sup>	

즉, 주관적 인권수준이 높을수록, 인권기관 및 제도 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여자 중학생 청소년일수록, 학교에서 학생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의사결정시 부모님의 인권 존중 수준이 높을수록,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 높을수록, 부모님으로부터 체벌이나 욕설 경험이 많을수록,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어머니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참여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함께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요약

지금까지의 집단별로 종속변수, 즉 응답자들의 참여권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세 집단(중학생,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에서 각 범주의 변수들은 종속변수의 변량의 설명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추정된 최적모형에 따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 응답자들의 경우 개별 독립변수들의 갖는 종속변수와의 관계의 강도<sup>19)</sup>에 유사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인권기관 및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는 집단에 관계없이 응답자들의 참여권 인식 수준에 강한 긍정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성별’ 역시 학력과 무관하게 여자 응답자들의 참여권 인식 수준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가정, 학교, 한국사회의 전반적 인권수준 역시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별 독립변수들의 효과는 집단별로 차이 역시 나타내고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생활 만족도’나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중학생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나 ‘인권교육 횟수’, 그리고 ‘사회문제 참여’ 등은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중학생 집단에서는 최적모형에서 제외되었다. 반면 중학생 집단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인 ‘차별 경험’, ‘학교에서 학생 참여’, 그리고 ‘어머니 학력’ 등의 변수는 고등학생 집단의 최적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최적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은 ‘학교생활 만족’, ‘인권기관 및 제도 인지’, ‘남자더미’, ‘의사 결정시 부모님의 인권 존중’, ‘주관적 인권수준’, ‘학업성적’, ‘부모님으로부터 욕설이나 체벌’ 등으로 나타났다.

19) 이 연구에서는 각 집단에서 최적모형 추정에 활용된 개별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편상관계수와 모형에서 추정된 표준화 회귀계수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편상관계수의 크기는 최적모형에서 선택한 독립변수의 순서에 나타나며 표준화 회귀계수는 최적모형 분석 결과에서 산출된다.



# 제 5 장



## 소결 및 함의



## V. 소결 및 함의

이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사후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중고등학교 재학 청소년들의 참여권 인식 수준은 인권기관 및 제도에 대한 인지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과관계는 양방향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유엔아동권리 협약, 학생인권조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청소년들의 인권과 관련된 기관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 또는 인지는 청소년들의 참여권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관련 변수들을 통제 한 후에도 여자 청소년들의 참여권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나 분명한 것은 인지적 발달 측면에서 볼 때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셋째, 의사결정시 부모님의 인권 존중 태도는 모든 집단에서 강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가정에서의 부모에 의한 인권존중 태도가 자녀의 인권감수성이나 인권인지 수준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부모로부터의 체벌이나 욕설의 정도가 미치는 영향 역시 두 집단 모두에서 일관되게 발견된다. 어떠한 기제(mechanism)를 통하여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겠지만 가정에서의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들의 인권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다. 넷째, 학교에서의 학생참여가 중학생 집단에서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모형에서 제외되어 있다. 반면 사회문제 참여 경험은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중학생 집단에서는 모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참여의 공간이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하여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기관 및 제도에 대한 인지는 모든 집단에서 청소년의 참여권 인식수준에 강한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참여권 신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인권관련 기관 및 제도에 대한 내용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모두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의 참여권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참여권 신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개입의 성별로 차별화 되어야 함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남녀의 특성에 알맞은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정, 학교, 그리고 전반적 한국사회의 인권수준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들의 참여권 인식수준과 강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발생하는 인권보호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 스스로의 참여권에 대한 높은 인식수준을 가지는 것이다. 당연하고 원론적일 수 있겠으나 개인의 인권에 대한 사고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청소년 인권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소년 스스로의 인권의식 또한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의 한계에 대하여 몇 가지 언급하자면, 먼저 위에서 밝혔다시피 이 연구의 성격은 탐색적이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사회과학 연구에서 탐색적 성격의 연구는 단순 기술적(descrittive) 연구에 비해서는 보다 발전된 수준의 연구로 인식되나 이론적 연역과 가설에 기반을 둔 인과관계 분석 연구에 비해서는 한 단계 아래의 연구로 여겨진다. 이 연구의 주제인 청소년 참여권의 경우 대부분의 과거 연구들이 해외 문헌 소개 및 국내 적용방안을 둘러싼 정책연구에 집중되어 왔음으로 인해 이론적 기반과 실증적 자료가 부재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이 연구의 탐색적 성격은 청소년 참여권, 더 나아가 청소년 인권에 대한 이론적 및 실증적 분석의 현 단계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지적될 부분은 분석 방법으로써 회귀분석의 적절성이다. 이 연구의 분석과정에서 모형에 투입된 독립변수 가운데 유의한 효과를 갖는 것들 중 일부는 종속변수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예컨대, 학교성적이나 부모로부터의 욕설, 인권기관 및 제도 인지 등이 그것이다. 통계적 유의성이 이론적 또는 해석적 유의성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음을 감안 할 때 몇몇 변수들의 효과가 통계적 인공물(statistical artifact)이 아닌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상의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수집된 전국 단위 자료를 활용한 청소년 참여권의 실증적 분석이라는 차원에서 이 연구가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축적된 청소년 인권에 대한 관념적 연구에서 진일보한 실증 연구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기대된다.



# 참 고 문 헌



## 참 고 문 헌

- 김영지·김희진·김진숙·김진호·안재희·이경자 (2008). **국제기준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II: 청소년 인권실태와 국제비교** (연구보고 08-R09).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병금·유은선 (2011). 청소년의 권리인식과 자아존중감. **청소년학연구**, 18(8), 89-116.
- 모상현·김희진 (2009).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연구 IV: 생존권·보호권 인권 실태조사** (연구보고 09-R1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모상현·천정웅·신승배·이중섭 (2009).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V: 생존권·보호권 정량지표** (연구보고 09-R13-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모상현·김영지·김영인·이민희·황옥경 (2010).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V: 발달권·참여권 기본보고서** (연구보고 10-R1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문성호·성정숙 (2000). 학생청소년의 권리인식에 대한 실증적 연구 - 서울시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계간 사회복지**, 146, 67-94.
- 문용우 (200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권리의식과의 관계 연구**. 경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우원미 (2010). **청소년의 발달권 및 참여권 수준 실태조사: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총신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수연·문용우 (200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권리의식과의 관계 연구. **청소년학연구** 9(6), 65-89.
- 이재연·강성희 (1997). 권리에 대한 아동의 인식. **아동권리연구**, 65-83.
- 이승미 (2000).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인지·정서 요인에 관한 실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임희진·김현신 (20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 (연구보고 11-R1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희진·김현신 (201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 (연구보고 12-R1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the variable that affects the recognition level of the participation rights of youth, especiall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by using the maternal, 'Korean Survey on the Rights of Youth and Children in 2013'.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 first, in terms of 'recognition on human rights agencies and systems,' there is strong static effect of the recognition level of the participation rights of respondents regardless of groups, and female respondents have a higher recognition level of participation rights, compared with male ones, regardless of educational background in terms of 'gender.' In addition, the general level of human rights subjectively recognized in Korean society including families and schools shows relatively strong static effect in both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effect of individual independent variable depends on groups. In terms of 'the satisfaction of school life' or 'stress caused by study,' high school students show relatively stronger effect, compared with middle school students. In addition, in terms of 'economic conditions of family,' 'frequency of education of human rights,' or 'participation in social issues,' high school students show significant effect, but the items are excluded from the optimal model in the middle school student group. However, the variables that show significant effect in middle school students, 'experience in discrimination,' 'participation of students in school activities,' and 'educational background of their mother,' are excluded from the optimal model in the high school student group. The variables commonly inputted to the optimal model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groups are 'satisfaction of school life,' 'recognition of human rights agencies and systems,' 'male dummy,' 'respect of the human rights of their parents during decision making,' 'subjective human rights level,' 'school record,' 'corporal punishment or insult by parents,' etc.

Based on the research result, political proposal is made as follows. First, as the recognition of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systems has a strong static effect on the recognition

level of the participation rights of youth in all groups, the description of the organizations and systems related with human rights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educational programs for improving the participation rights of youth. Second, in all groups, as male respondents show lower recognition level of participation rights, compared with female ones, it needs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for human right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male and female. Finally, the recognition level of human rights in general Korean society including families and schools shows strong static relation with the recognition level of the participation rights of youth. That shows, as the thought of human rights of an individual is strongly affected by his/her environment, if the human rights of youth in schools and families are respected, the recognition of human rights of youth will be able to be improved.

##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13-R01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 :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 이경상·최항섭·그레이스정
- 13-R02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I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지경·이광호
- 13-R0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 김현철·임희진·정효진·민경석
- 13-R04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연구 / 김기헌
- 13-R05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맹영임·길은배
- 13-R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 안선영·김희진·강영배·배경내
- 13-R07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영한·조아미·이승하
- 13-R08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연구 / 이창호·김경희
- 13-R09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창욱·전명기
- 13-R10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I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윤옥경·조윤오
- 13-R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장근영·배상률·성은모·이혜연·김균희·이용교·홍승혜
- 13-R1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이혜연·배상률·성은모·김균희
- 13-R11-2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행복에 대한 부모와 자녀(청소년)의 상호기대 차이 연구 / 성은모·오현석·최윤미
- 13-R12 다문화 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양계민·박주희
- 13-R12-1 다문화 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 김승경
- 13-R12-2 다문화 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질적연구보고서 / 이창호
- 13-R12-3 다문화 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김승경·박주희
- 13-R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김영지·김경준·김지혜·이민희
- 13-R13-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유성렬·김신영
- 13-R13-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201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김경준
- 13-R1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 사업보고서 / 이종원·서정아·황진구·한영근·허효주·이영화
- 13-R14-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1 :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비행, 비행친구의 관계에 대한 중단 연구 / 이종원
- 13-R14-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초기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와 영향 요인: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 서정아
- 13-R14-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3 :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변화와 자아인식·사회적 발달 - 중학교 1학년부 3학년까지 중단분석 - / 황진구·허효주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1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정책적 지원체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1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 오해섭·박정배 (자체번호 13-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2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2013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박정배·오해섭 (자체번호 13-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3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교육분야 지원체계 구축 / 홍영란·현영섭 (자체번호 13-R15-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 / 모상현·김형주·이선영 (자체번호 13-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표 개발을 통한 정신건강지원체계구축연구 / 최은진·김미숙·전진아 (자체번호 13-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현장적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창호·강석영·이동훈 (자체번호 13-R1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총괄보고서: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 김지연·황여정·이준일·방은령·강현철 (자체번호 13-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형 개발 / 김은지·김동식·최인희·선보영·김나연·정다운 (자체번호 13-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국내 입양 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 / 신윤정·이상림·김윤희 (자체번호 13-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윤철경·유성렬·김신영·임지연 (자체번호 13-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전영실·김지영·박성훈 (자체번호 13-R18-1)

## 수 시 과 제

- 13-R19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연계 방안 / 성은모
- 13-R20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전략 연구 / 최창욱
- 13-R21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 황진구·김희진
- 13-R22 전국 청소년단체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영한
- 13-R23 청소년영향평가제 도입방안 기초연구 / 윤철경·김윤나
- 13-R24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임희진
- 13-R25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장근영
- 13-R26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이슈페이퍼 발간) / 이창호

## 수탁과제

- 13-R27 영천시 청소년수련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김상연
- 13-R28 2013년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 배상률 · 김형주 · 성은모
- 13-R29 2013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13-R30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3 / 황진구 · 유성렬
- 13-R31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 청년문화 조성방안 연구 / 김승경
- 13-R32 제9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최창욱
- 13-R33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 황진구 · 김지연 · 이해연 · 김광혁
- 13-R34 국립대구청소년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세부사업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 · 이유진 · 한상철 · 추승연 · 김상연
- 13-R35 2013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 양계민
- 13-R36 201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평가 / 김지연 · 이경상
- 13-R37 한중청소년 특별교류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윤철경 · 이창호 · 최금해 · 오해섭
- 13-R38 청소년국제활동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사업 / 양계민
- 13-R39 청소년가족연계서비스 구축모형 개발연구 / 서정아 · 황진구 · 조성은
- 13-R40 청소년 희망카드(가칭) 도입방안 연구 / 김경준 · 모상현
- 13-R41 2013년 성남시 청소년실태조사 연구 / 최창욱 · 황진구 · 이종원
- 13-R42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BSG매니저 전문가 과정 연구용역 / 김승경 · 맹영임
- 13-R43 자유학기제 학생자율선택프로그램(농림수산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창욱 · 송병국
- 13-R44 RCY 미래전략 개발 및 참여청소년 효과성 연구 / 장근영 · 맹영임
- 13-R45 2013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배상률 · 황여정
- 13-R46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모델 개발 / 안선영
- 13-R47 유소년스포츠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 / 임지연 · 장덕선
- 13-R48 휴먼네트워크 멘토링의 효과성 및 사회경제적 가치분석 연구 / 성은모 · 이주석
- 13-R49 2013년 또래조정사업 (2014년 1월 발간예정) / 양계민 · 김지경 · 김지연 · 이종원
- 13-R50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성은모 · 최창욱
- 13-R51 대구광역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김형주 · 배상률 · 강영배 · 김정주 · 김혁진 · 이은미
- 13-R52 학생모니터단 운영 (2014년 2월 발간예정) / 오해섭 · 김경준 · 김영지
- 13-R53 학교문화개선연구선도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경준 · 오해섭 · 김영지
- 13-R54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경준 · 모상현 · 이해연
- 13-R54-1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경준 · 모상현 · 이해연
- 13-R54-2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 · 이지혜 · 박형근 · 이수경 · 전진현
- 13-R54-3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 · 이지혜 · 박형근 · 이수경 · 전진현
- 13-R54-4 외국의 학생인권 법령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 · 김인숙 · 정병수 · 황소영 · 신혜원
- 13-R54-5 교사용 인권교육자료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 · 김인숙 · 정병수 · 황소영 · 신혜원
- 13-R55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초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현철 · 김희진 · 김인아 · 김재근 · 김정희
- 13-R55-1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중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현철 · 김영지 · 김희진 · 송인숙 · 표혜영

- 13-R55-2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고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희진 · 김영지 · 김현철 · 박정수 · 박지만 · 오수정
- 13-R56 디지털교과서 · 스마트교육 연구학교 시계열효과 분석연구 (2014년 2월 발간예정) / 장근영 · 김형주
- 13-R57 학업중단 학생 교육 지원 (2014년 6월 발간예정) / 김영지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3-S01 인성교육실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 학교규칙 및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1/28~29)
- 13-S02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 (1/7~8)
- 13-S03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I (1/7~8)
- 13-S04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설문지 제작 워크샵 (2/5)
- 13-S05 NYPI 기획세미나 -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 : 외국 사례와 방향성 모색 (2/21)
- 13-S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 전문가 워크샵 (2/21)
- 13-S07 NYPI 기획세미나 방송과 청소년보호 (2/28)
- 13-S08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과 법제 (2/13)
- 13-S09 2012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청소년의 행복을 묻는다 : 성장 환경과 발달 모습 (3/20)
- 13-S10 후기청소년세대 현황과 정책과제 세미나 (4/10)
- 13-S11 제2차 2012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 청소년 역량 개발 방향성 모색 : 체험활동과 인프라 조성 - (4/18)
- 13-S12 탈북청소년 연구동향 및 사회통합정책에의 시사점 (4/9)
- 13-S13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 · 선도학교 워크숍 (4/29, 30)
- 13-S14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 · 선도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9)
- 13-S15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5/21)
- 13-S16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6/1)
- 13-S17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문화 조성 방안 세미나 (5/22)
- 13-S18 대안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 (5/24)
- 13-S19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6/1)
- 13-S20 해외 이슈배경 청소년정책과 한국사회에의 함의 (6/3)
- 13-S21 2013년 미래환경변화전망에 따른 청소년 정책의과제 I 콜로키움 자료집 : 미래에 대한 접근 (6/4)
- 13-S22 아동 · 청소년 인권지표 개선방안 모색 워크숍 (6/11)
- 13-S23 201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사건가 분석 (6/21)
- 13-S24 NYPI 개원 24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7/3)
- 13-S25 2013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잠재성장모형 분석 (7/14)
- 13-S26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한 청소년체험활동의 연계방안 (7/5)
- 13-S27 청소년상담의 이해와 상담기법 (8/5~7)
- 13-S28 입양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색 (6/18)
- 13-S29 독일 · 프랑스 · 덴마크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7/5)
- 13-S30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센터 관계자 간담회 (7/17, 19)
- 13-S31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모니터링 위원 간담회 (7/22)
- 13-S32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1 : 교육단계 (7/23)
- 13-S33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2 : 직훈단계 (7/24)

- 13-S34 2013년도 진로교사 심화연수 - 청소년상담 기법(C-4) (7/29~31)
- 13-S35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하계연수 (7/22~25)
- 13-S36 탈북청소년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탐색 (8/29)
- 13-S37 제2차 학교문화개선 연구선도학교 워크숍 (9/9~10)
- 13-S38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 지원체계 구축 전문가 워크숍 (9.13~14)
- 13-S39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 워크숍 (9/27)
- 13-S40 영국·핀란드·스웨덴·일본의 청소년 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 13-S41 유소년 스포츠 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의 현황과 정책과제 (10/15)
- 13-S42 STATA를 이용한 패널데이터 분석방법 (10/16)
- 13-S43 스티그마의 이해와 대응전략 (10/24)
- 13-S44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11/18)
- 13-S45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초안) 시범운영 결과 검토 워크숍 (10/25)
- 13-S46 제3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 (11/14)
- 13-S47 한-중 국제세미나 (11/19)
- 13-S48 2013 아동·청소년 권리 학술대회 (11/27)
- 13-S49 청소년 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11/26)
- 13-S50 RCY 미래전략 및 발전방향 탐색 (11/29)
- 13-S51 자유학기제, 지역사회에서 길을 찾다 (11/28)
- 13-S52 210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패널 데이터의 가중치 산출 및 활용 (12/17)
- 13-S53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Ⅱ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정책협의회 및 전문가 워크숍 (12/16)
- 13-S54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12/13)

##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1호(통권 제6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2호(통권 제69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7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4호(통권 제71호)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2호 : 부모 비동거 대학재학생의 주거유형 및 주거비부담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3호 : 스마트폰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4호 : 청소년참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5호 :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6호 :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7호 :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8호 :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9호 :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0호 :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7호 : 201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8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 2012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9호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Ⅲ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0호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2012년 청소년 민주 시민역량 실태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1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2호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실태와 체험활동의 효과

연구보고 13-R13-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인 쇄 2013년 12월 24일

발 행 2013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전화 02)725-5216 대표 류윤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아카이브팀)

ISBN 979-11-5654-001-4 94330

978-89-7816-769-7 (세트)